



현대
화
의
한옥

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7 Korea Hanok Competition



진행과정

공모 공고	2017. 5. 16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준공·사진·계획부문 (2017. 8. 1 - 8. 4)
심사	준공부문 (1차: 8. 16 / 2차: 8. 23, 8. 29) 사진부문 (8. 16) 계획부문 (1차: 8. 16 / 2차: 9. 7)
시상식	2017. 10. 17
전시회	2017. 10. 17 - 10. 22

운영위원/심사위원

운영·심사위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재경 포토그래프

가온건축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이한 건축사사무소

김성우 명예교수

김재경 대표

노은주 소장

조재모 교수

한보영 소장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옥의 현대화”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담기 위한 그릇이며, 인간의 삶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 문화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려는 가치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고 그 가치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다. 전통건축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자리이었고, 거주문화이었으며, 삶을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를 표현하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한옥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주를 통해 어떤 문화적 특성을 원하고 있고, 우리 거주를 통해 어떤 가치를 구현하려 하며, 우리 거주가 지향하려는 정신적 방향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된다.

한옥은 보존하고 확대보급하려는 차원의 관심사가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거주를 위해 한옥이 어떻게 재현, 재생 및 현대화될 수 있는가를 같이 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한옥 현대화”는 구조-기술적 차원, 공간-사용적 차원, 시각-표현적 차원 및 가치-정신적 차원의 현대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한옥이 예스러운 경관이나 박물관 취미, 내지는 문화재적 관심사의 영역 안에 가두어져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전통문화와 전통건축은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현대화 가능성’을 위해서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현대화 시도들은 아무리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모여져서 서구적 근대화 이후의 미래적 가능성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옥 공모의 주제로서 ‘한옥의 현대화’를 택하면서 우리는 ‘전통적 한옥이 현대적 거주를 위한 건축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물으려 한다. ‘근생을 포함한 도시 내 저층 거주시설’로서의 건축계획을 그 방법으로 취하려 한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 거주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 ‘한옥 현대화 가능성’을 욕심내려 하였기 때문이다. 한옥 현대화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하여 구체화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있어야 하는 당위성 때문이다. 이 공모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은 우리 한옥이 전통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한옥이 우리의 일상적 도시현실에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고민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한국 건축인의 미래지향적 고민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위원장 심사평	4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8
올해의 한옥상	12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2
	특별상	28
	금상	32
	은상	36
	동상	44
	입선	52
청소년	특별상	62
	금상	64
	은상	66
	동상	68
	입선	70

계획부문

대상	76
특별상	80
금상	82
은상	84
동상	88
입선	94

심사위원장 심사평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7년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심사가 끝나고 수상자들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공모전이 그러하지만, 특히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수상자를 선별하여 상을 주는 것 외에 한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사람들의 생활 안에 더욱 확대보급 되게 하려는 의도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품된 작품들은 수상 여부를 떠나 모두가 하나같이 소중하고 고마운 작업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우리 한옥이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급적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심사위원들이 가졌던 심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작품집 서두에 밝힘으로써, 출품한 모든 분들과 작품집을 보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한옥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건축부문, 준공부문, 사진부문에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계획부문은 주로 학생들이 참가하는 한옥의 계획안이고, 준공부문은 기성 건축가들의 설계를 거쳐 실제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부문이 그림과 모형으로 보여지는 미래 한옥건축가를 꿈꾸는 꿈나무들의 계획적 시도에 대한 심사라면 준공부문은 계획과 시공의 실무적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한옥건축물 자체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금년에는 사진부문 출품작은 235건, 계획부문 출품작은 53건, 준공부문의 출품작은 17건으로 예년보다 출품작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계획부문]

계획부문은 “한옥의 현대화”를 주제로, 도시 내 300평 정도의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1-2인 주거 및 공동시설을 5층 이내의 건물로 계획하되, 계획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옥을 현대화시켜 달라는 요건을 주었습니다. 출품된 53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패널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을 선별하였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한옥의 현대화”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던 만큼 현대화의 대안으로서 성공적인 작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정된 조건 속에서 한옥을 현대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아쉬웠던 사항으로 추후 공모전 출품 시, ‘주어진 주제와 조건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추상적

해석보다 상식적 해법에서 먼저 답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안하려고 하는 바에 대한 의사소통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더 고민해달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해화당, 서운동 진달래길 게스트 하우스”는 제출된 작품 중에서 주제의 의도와 제시된 조건에 충실한 작품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표현과 마감 및 디자인 세련도에 있어서 한계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계획의 의도와 목적인 바가 결과로 확실하게 표현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내 한옥의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현대적 저층부와 한옥적 상층부, 내지는 그 둘 사이의 병치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대안이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었고 그 해법이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금상 수상작인 “감옥에서 한옥으로”는 제시하려는 현대화 대안이 기존하는 건물의 상층부에 한옥의 접목을 시도하되 그 구체적 해법이 한옥의 구조적 이해와 세부적 디테일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이 좋게 평가되었습니다.

특별상 수상작인 “木工, Reproduction of Vernacular Architecture”는 주어진 주제와 조건에서 다소 벗어나는 점이 있지만, 한옥의 요소를 도입하여 건물에 편입시키려 한 의도와 옥상부의 처리 등, 세부적 디자인의 우수한 표현기법이 특별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은상 수상작인 “더불어 지낸당”과 “한옥 플랫폼: 다양한 삶의 그릇”은 한옥적인 세부처리와 상업 및 주거용도 저층한옥의 개발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고 외부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중정을 도입한 도시 현대 한옥의 개념을 제안한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동상 수상작인 “Modern Share Hanok”, “검이불루 화이불치”, “열린 집”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지만, 도시형 한옥으로서의 제안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입선작보다 상대적인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준공부문]

준공부문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출품된 작품 중에는 신축과 리노베이션,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등 다양한 건축방식과 용도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전체적 수준과 질적 성취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던 사례는 리노베이션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현대화를 시도한 경우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축된 건물이나 정통적 방법으로 지어진 작품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보아왔던 방식들을 적용한 것 이외의 새롭게 시도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현장심사를 통해 설계자의 직접적인 설명과 건축물을 살펴본 후 다각도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 후 3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은 서대문구 천연동 내 주택가 경사지 뒷골목에 위치한 단독주택(조정구, 구가도시건축)으로, 일제 강점기(1939)에 지어진 30평 정도의 소형한옥을 리노베이션 한 작품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주와의 논의를 통해 신축이 아닌 보존적 보수의 방법을 통해 기존 한옥의 재료와 세부적인 요소들을 가능한 남기고 되살려서 성공적으로 한옥을 리노베이션 하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를 남겨두었고 방공호를 거주공간으로 바꾸었으며, 과거의 공간 하나하나를 창의적으로 개조하여 재생시켰습니다. 특히 60년대의 스텐 욕조를 연마하여 재사용한 것과 타일을 하나하나 걷어내어 몰탈을 제거하고 재사용한 것에서 기존의 것을 남기고자 노력한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이 건축물은 겉으로 두드러지는 시각적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도시 소형한옥을 리노베이션 한 사례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례를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에서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한옥상 '유달리 한옥'은 성북동에 있는 한옥을 리노베이션 한 작품으로, 기존에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던 도시한옥을 1층은 의류매장, 2층은 사무실로 개조한 작품입니다. 대상과 같은 리노베이션 작품이지만 리노베이션의 목적과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정의 한식목구조와 주요 구조재는 가능한 노출시키되 나머지 세부적인 요소는 완전히 모던(modern)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계획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한옥의 요소와 모던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당초 계획의도가 성공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 작품의 장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빗물받이나 트렌치와 같은 설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한옥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현대화를 시도한 리노베이션 사례들에 반하여 한옥을 모던한 분위기 안으로 과감하게 편입시킨 시도로서 기억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올해의 한옥상 '호원재'는 주상복합의 신축한옥으로, 정통적인 구법과 형식에 따라 지은 한옥이 아닌 재료, 평면, 기능 등의 모든 요소가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현대적으로 구성된 한옥입니다. 38평의 작은 땅에 지은 소형주택이어서 마당과 같은 외부공간을 욕심내기도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도시 주거지의 공간적 밀도에 부합하면서 아래층 찻집, 위층 주거 및 다락을 배치하는 방식,

벽돌과 나무를 과감하게 섞어쓰는 방식, 인테리어의 모든 부분을 상황에 맞게 설계 하여 직접 시공하는 방식, 작은 집이면서도 건물의 모든 방향에서 발코니와 경관활용을 시도한 방식, 전벽돌 이중외피나 스텐 물끓기 등 시공상의 기술활용 방식, 시공의 경제성을 추구한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한옥의 현대화에 대한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한옥'으로서보다 '현대한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작품이었습니다.

준공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보니, 신축보다는 리노베이션, 정통적 한옥보다는 현대화된 한옥, 규모가 크기보다는 작은 집에 치중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의 수상작이 보다 한옥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가 존중되었던 경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다소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정결과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한옥건축이 앞으로는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구법과 격식이 존중되는 흐름 이외에 이번에 선정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대화를 추구하는 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부문]

사진부문의 경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서 올해 처음으로 3장의 사진을 하나의 작품으로 하는 연작 형태의 출품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품자의 의도나 표현의 구도가 사뭇 달라지기도 하였지만 더 많은 생각을 담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진의 가능성을 더 확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연작 출품의 공모방법이 지속되게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사진부문의 출품작을 통해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의 선정기준은 작품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 향후 한옥공모전에 출품되는 사진이 기록을 염두에 둔 사진, 예술적 합성 내지 추상적 변형 등 다양한 작가의 의도와 표현 방법을 통해 다각도의 관점에서 심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된 공모방식은 지속되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수준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전체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응모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볼게 됩니다.

심사위원장 김성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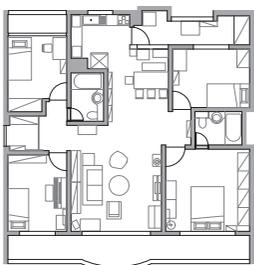


준공부문



최종 평면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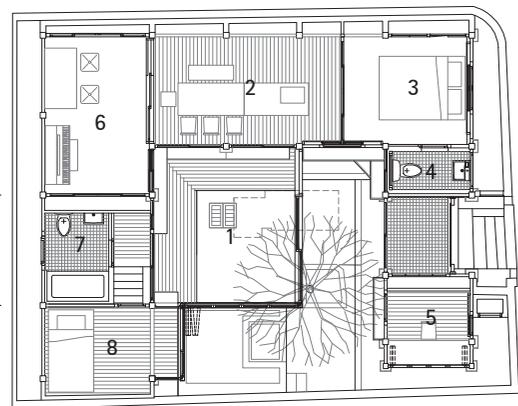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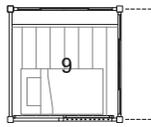
아파트에 살던 다섯 식구가 한옥을 만나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통해 지금의 계획안이 탄생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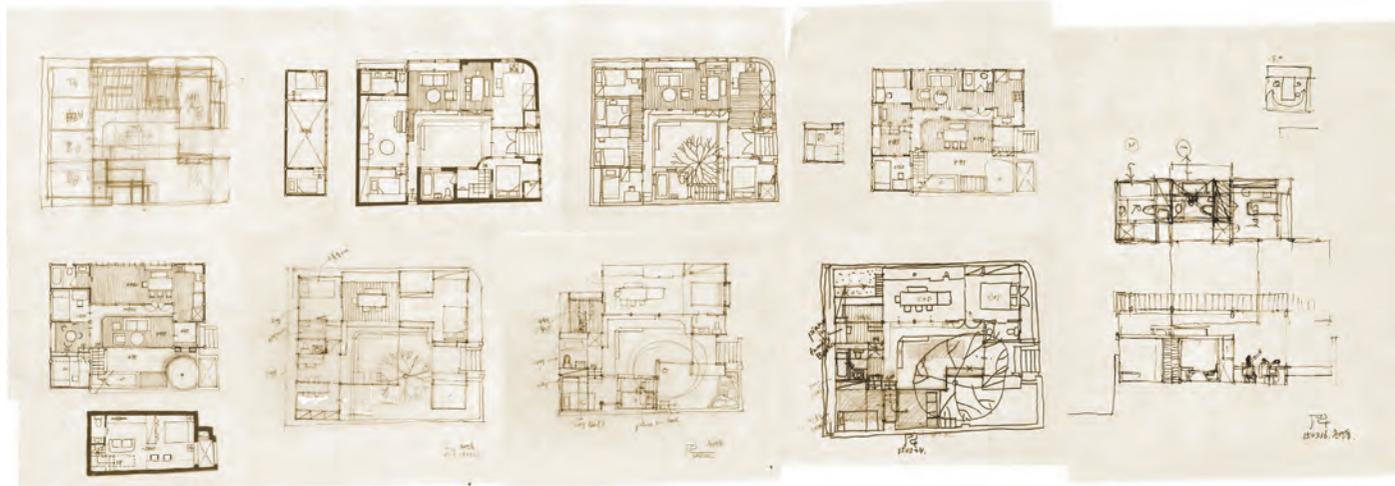


=



- 1 거실
- 2 주방/식당
- 3 안방
- 4 화장실
- 5 서재
- 6 가족실
- 7 욕실
- 8 첫째, 둘째방
- 9 막내방

다양한 평면 계획안 스케치



시간이 곱게 쌓인 집 천연동 한옥

서대문 근처 천연동에 자리한 집이다. 1939년에 지은 한옥으로 주변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이 되었다. 수년 동안 비워있던 집은 일부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지만, 실력있는 대목이 지었는지 비례와 짜임이 좋고 보존상태도 무척 양호하였다. 낮은 바닥의 부엌과 다락, 부엌에서 내려가는 창고와 창고방, 마당에 둔 욕실과 장독대 그리고 마당을 가득 덮은 감나무와 그 아래 방공호까지, 집 안의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 곱게 쌓인 눈처럼 그대로 남아있었다.

계획의 과정

이 집을 새로 장만한 건축주 가족은 부부와 자녀 모두 다섯으로, 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초기에는 한옥 일부를 해체하고 지하에 부부 침실과 거실을 두는 안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래된 한옥과 마당이 마음에 들어 '한옥에 살기'로 마음먹은 건축주에게 '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편리하고 다채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아트리움을 덮어 거실이 된 마당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청을 주방과 식당으로 하고, 마당 일부를 아트리움으로 덮어 거실로 한 것이다. 주방과 식당이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도시한옥의 핵심인 마당을 거실로 만드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럼에도 아트리움을 덮음으로서 원래의 창과 문을 그대로 둘 수 있으며, 마당이 된 거실에 앉아 '오래된 한옥'을 배경으로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트리움에는 외부차양을 두어 날씨에 맞게 햇볕을 조절하고, 기단에 마루를 얹어 자연스럽게 몸을 대고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과 삶을 조화시키는 과정

집의 고유한 정취를 살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다. 180cm가 넘는 건축주의 키에 맞추어 다닐 수 있도록 바닥을 낮추고, 원래 창들을 부분 해체하여 새로운 부재를 덧대었다. 하수도 공사로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 오래된 타일바닥을 잘 들어낸 후, 타일 하나하나에 붙은 물тал을 떼어내는 분리작업을 하였다. 한 편, 원래 부엌이었던 욕실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기능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락 장선을 그대로 두면서, 장독대에 있던 60년대 스텐 욕조(오리표)를 문래동에서 연마작업(빠우)을 해다 넣었으며, 원래의 바닥타일을 분리작업을 거쳐 그대로 다시 깔아놓았다. 또한 집 뒤로 통하는 출입문에 시스템 창호를 달아 빛과 바람이 통하도록 하여, 오래된 공간의 기억과 쾌적한 삶의 균형을 맞추어보고자 하였다.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설계자 (주)구가도시건축
(조정구)

건축주 박종서, 김혜정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대지면적 119㎡

건축면적 71.33㎡

연면적 85.09㎡

구조 한식목구조

규모 지상1층, 지하1층

용도 단독주택



유리 지붕 위로 외부 전동 차양을 두어 날씨에 맞게 햇볕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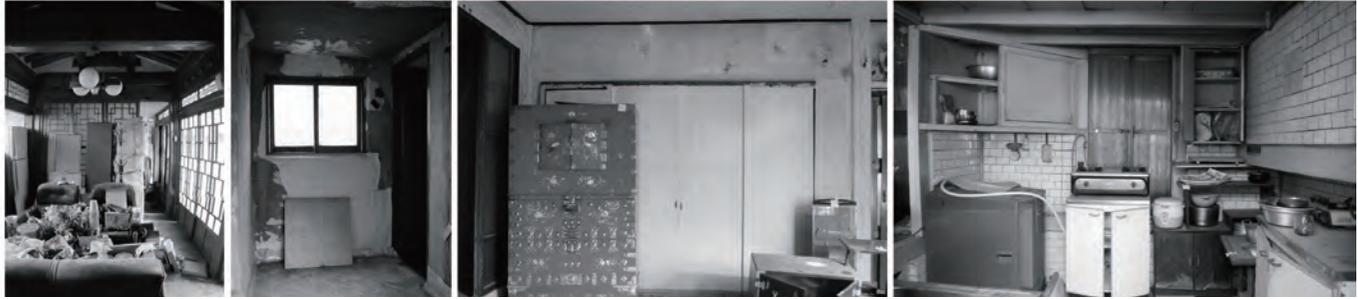
기단 위로 기단 깊이보다 넓게 마루를 얹어 자연스럽게 몸이 닿을 수 있게 하였다.



여름의 아뜨리움

장독대 위 폴딩도어와 큰 유리문을 열어 본래 마당처럼 트인 공간으로 지낼 수 있다.

시간과 삶을 조화시키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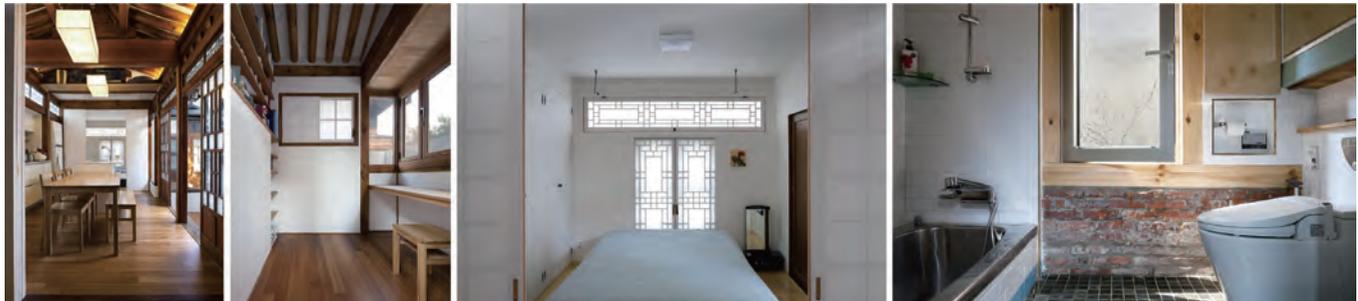


거실로 쓰이던 대청을
주방/식당으로 계획하였다.
전체바닥을 낮추고
원래창틀의 아랫부분을
수리하여 다시 설치하였다.

어둡고 좁았던 문간방을
서재로 하였다.
책꽂이 아래는 반대편에서
신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래 있던 창 위로 새롭게 고창을 두어 밝은 방이 되었다.
기존갑창의 문양으로 한지들창을 두었다.

원래 부엌이었던 욕실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기능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락 장선을 그대로 두면서, 징독대에 있던 60년대 스텐
욕조(오리표)를 문래동에서 연마작업(빠우)을 해다 넣었으며,
원래의 바닥타일을 분리작업을 거쳐 그대로 다시 깔아놓았다.
또한 집 뒤로 통하는 출입문에 시스템 창호를 달아 빛과 바람이
통하도록 하여, 오래된 공간의 기억과 쾌적한 삶의 균형을
맞추어보고자 하였다.



삶의 풍부함을 위하여

‘대청 식탁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집’, ‘마당 가득 하늘을 덮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텅굴텅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집’을 생각했다. 천연동 한옥은 오래된 한옥이 가진 고유한 정취와 시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가를 같이 고민한 작업이라 하겠다.





Site



Design Development



Before



After



Before



After

유달리 한옥 俞達梨 韓屋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성북동 한옥 리노베이션(유달리 컴퍼니 사옥)

1층은 유달리 의류매장, 2층은 유달리 오피스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가 들어왔다

1940년 지어진 이 한옥은 그간 보신탕집과 백반집으로 운영되었다. 식당에 맞게 가마솥과 주방 등 한옥구조에 맞지 않는 임의 공사로 기둥은 시멘트에 묻혀 썩어있었고 이로 인해 좌로 7센치 앞으로 5센치 정도 기울상태였다. 가운데 중정은 렉산으로 막혀 있어 하늘은 보여도 답답함이 있었다. 나는 일단 중정의 렉산을 뜯어내서 자연이 그대로 들어오는 한옥을 제안했다. 건축주도 흔쾌히 한옥의 천정을 전부 노출하길 원했고 한옥의 멋과 모던함을 살린 디자인을 주문했다.

중정을 오픈한다고 말한 다음부터 아주 많은 디테일의 고민이 있었다. 중정을 통해 떨어지는 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던 '중정의 오픈'이 많은 고민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물받이, 트렌치 디테일을 만들었다.

처마 물받이는 벽체를 지탱하는 구조체, 조명, 수납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겉으로 봤을때는 전혀 물받이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

기존에 흔히 한옥 리모델링에서 하던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옥'이 고민해야할 디테일을 만들었다.

일반인이 보면 그냥 한옥이지만 숨어있는 디테일과 기능을 일반인이 못알아차리게 하는게 나의 일이었다.

인테리어는 한옥내부는 최대한 모던하게 하는 것이었다.

한옥입구에 들어와서 왼쪽을 보면 완전 한옥, 오른쪽을 보면 한옥과 모던이 반반, 내부는 최대한 모던하게 만들었다.

한옥에서 스위치와 전선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한옥의 안락함을 만들었다.

가구는 aA designmuseum의 김명한 관장님의 컬렉션으로 채워졌다. 아르네 야콥센의 에그체어와 앤트체어 마르셀 브로이어의 바실리체어 등 한옥의 세월과 비슷한 시간을 지낸 빈티지 가구들이 한옥과 조화를 이룬다

설계자 에스플러스 디자인
(김치선, 문유선)

건축주 유달리

대지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동
58-23

용도 1F SHOWROOM,
2F OFFICE

1층 면적 54.10㎡

2층 면적 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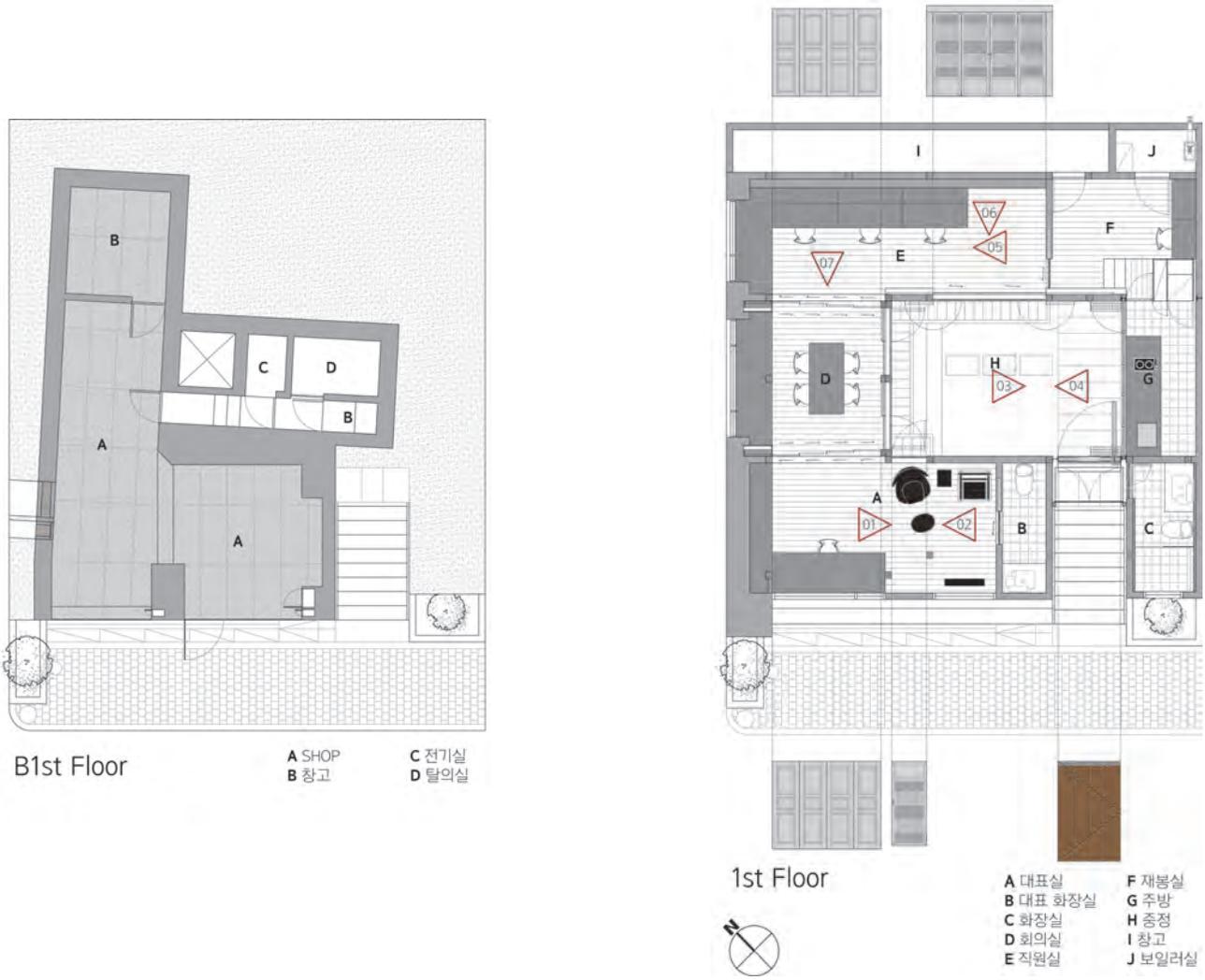
마감 바닥_ 원목마루,
더글라스, 테라조,
화강석

벽_ 더글라스, 페인트

천정_ 전통 한옥 미장

사진 에스플러스 디자인
(김치선)

평면도



Interior



▷ 01 대표실



▷ 02 대표실



▷ 03 중정 view_ 주방 폴딩도어 close



▷ 03 중정 view_ 주방 폴딩도어 open



▷ 04 중정 view_ 회의실 방향



▷ 05 직원실 view



▷ 06 직원실 view_중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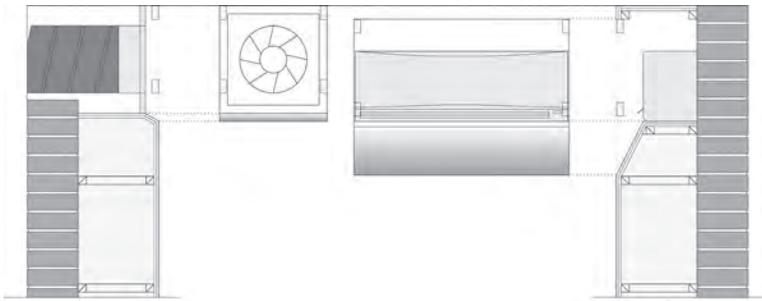


▷ 07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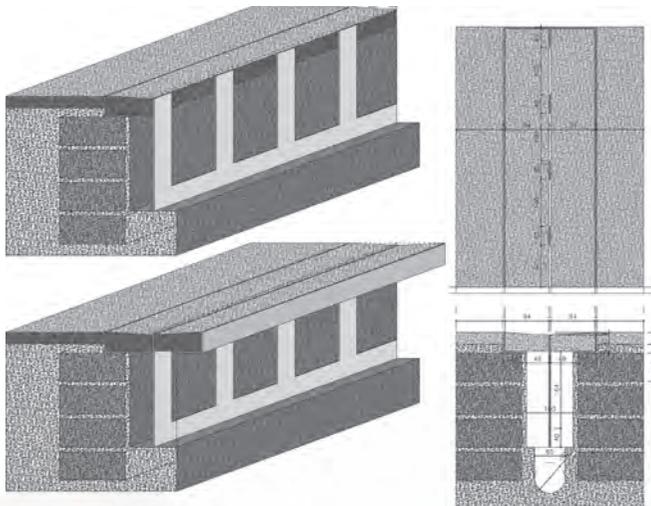
Detail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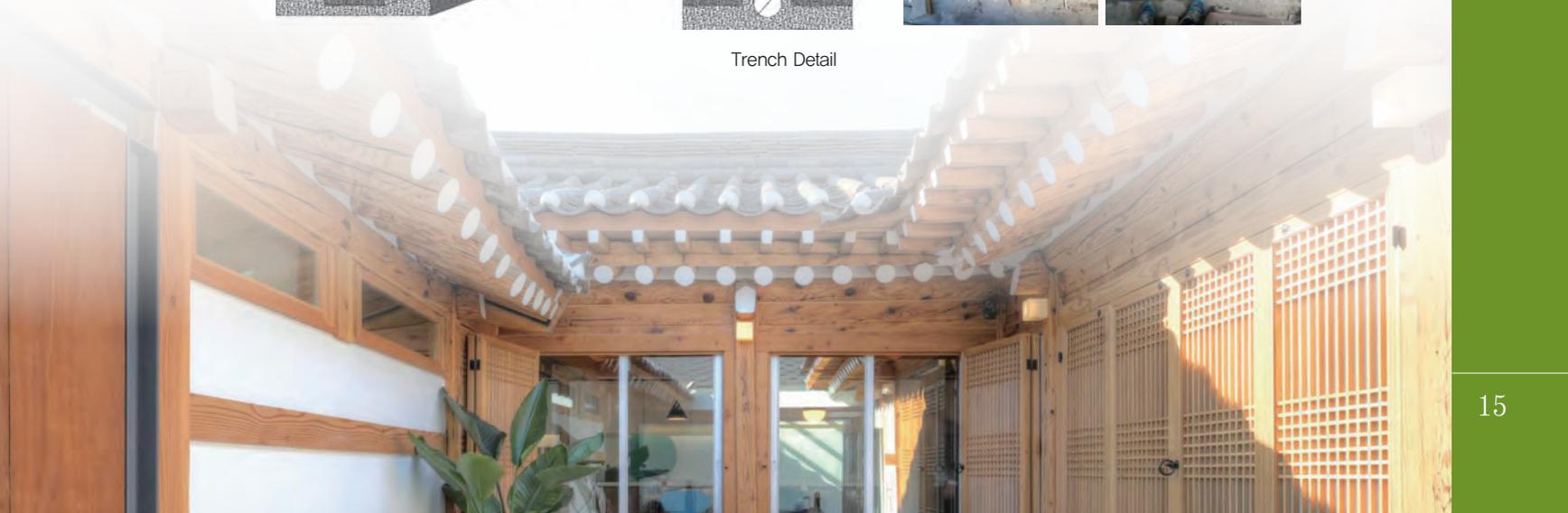
Wall Detail



Air Conditioner BOX Detail



Trench Detail





외부 전경



동측 전경



가로변 전경



북측 전경



전벽돌 상세

호원재 護元齋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호원재

2~3층 벽돌집으로 둘러싸인 동네에서 한옥을 지을 수 있을까?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옥을 지어야 할까?

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한옥을 개선할 수 있을까?

호원재는 이 세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밀도, 공간, 성능에 대해 고민하였다.

먼저 주변 도시 밀도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락을 포함한 2층으로 밀도를 높였으며, 돌출된 처마로 인한 면적을 발코니로 활용하였다. 건축법 완화를 받지 못하는 38평의 부정형 대지로 인해 처마길이가 짧아진 대신, 수원화성의 전벽돌 공법을 응용하여, 이중외피 방식으로 외부 벽체를 보호하였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자 주간 간격과 실내 천정고를 최대한 확대하였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상복합한옥을 통한 직주 일체의 생활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단층한옥에서 수평적으로 변화되는 공간의 위계를 2층 한옥에서는 수직적으로 배열하여, 1층 사랑채(근린생활시설), 2층 안채(주거)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공간 이동 동선을 수직방향으로 대체하면서 건축적 산책로 개념을 도입하였고, 밀집된 건물들 사이에서 경관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각 층 정면 방향을 달리 하였다.

한옥의 밀도를 수직방향으로 키우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내진구조가 적용된 프리컷 공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외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벽돌 이중외피, 스티코 마감, 스텐 물끊기 등의 신한옥 공법을 적용하였다. 2층에 캔틸레버 구조로 돌출된 발코니는 물끊기와 방수시트로 목구조를 보호하였다. 단열을 위해서는 흙 대신 난연우레탄폼을 충진하고, 3중 유리가 적용된 목창호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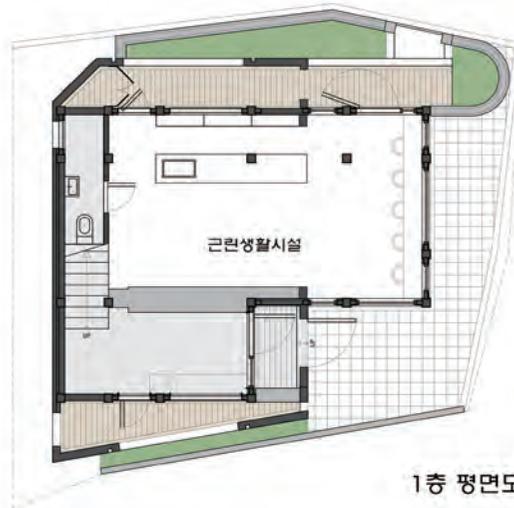
호원재는 한옥이 비한옥 건물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를 통해 한옥과 현대건축 사이의 경계를 낮추고, 한옥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설계자	스튜디오원(김완), 제이와이 아키텍츠 (조장희)
건축주	김완

대지위치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26
주요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26m ²
건축면적	75.33m ²
연면적	111.49m ²
건폐율	59.79%
용적률	88.48%
규모	지상 2층/최고높이 10.4m
설계기간	'15년 4월 26일 ~ '15년 11월 12일
공사기간	'15년 11월 23일 ~ '17년 1월 26일
사진	황효철, 변정석



1층



1층 평면도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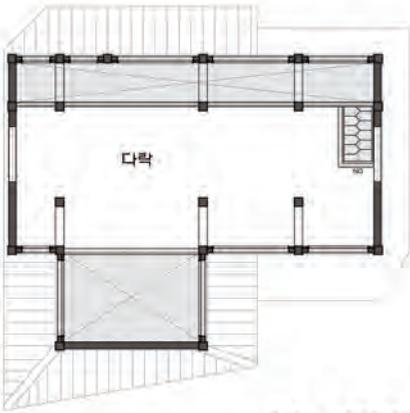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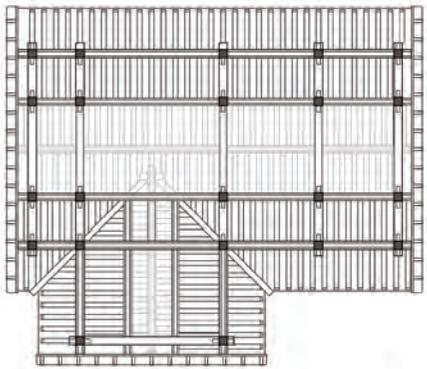
3층



다락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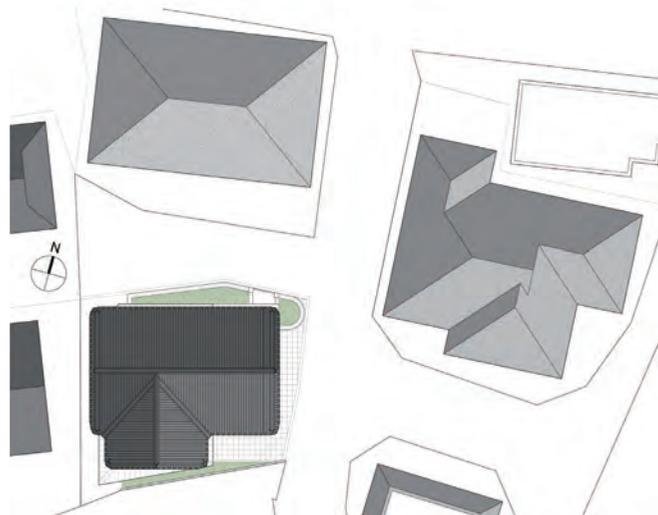


지붕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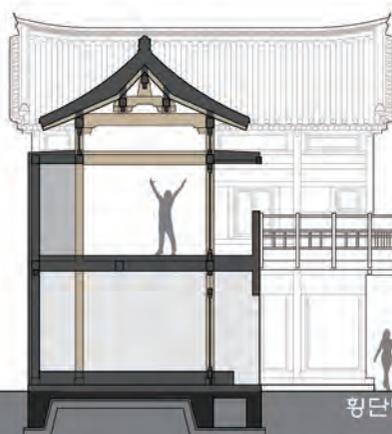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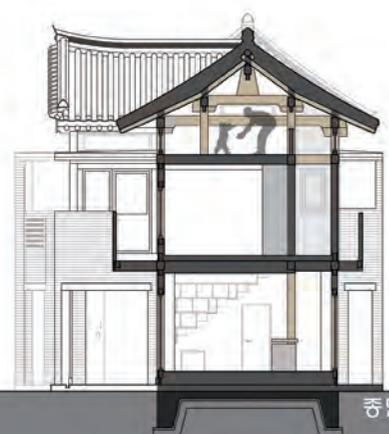
단면도



서측면도



횡단면도



중단면도



사진부문

- 일반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옥의 토담

수상자 고수경

촬영장소 대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옥의 토담

수상자

고수경

촬영장소

대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옥의 토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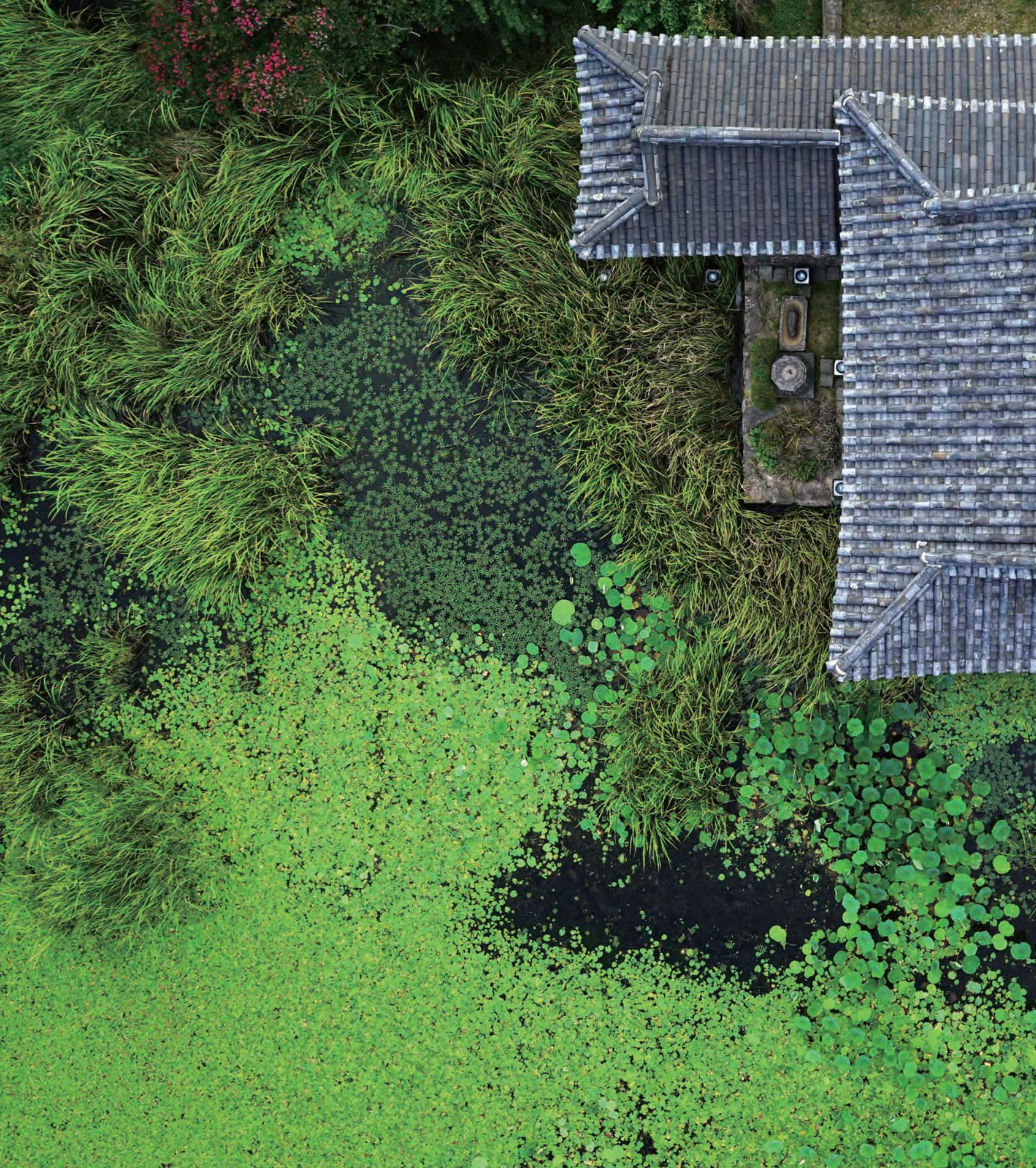
수상자

고수경



촬영장소

대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한옥의 美

수상자 김재현



촬영장소 경주 서출지



촬영장소 논산 명재고택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한옥의 美

수상자 김재현

촬영장소 밀양 완재정





금 상

동궁과 월지

수상자 김상석



촬영장소 경주 동궁과 월지



촬영장소 경주 동궁과 월지

금 상

동궁과 월지

수상자

김상석

촬영장소

경주 동궁과 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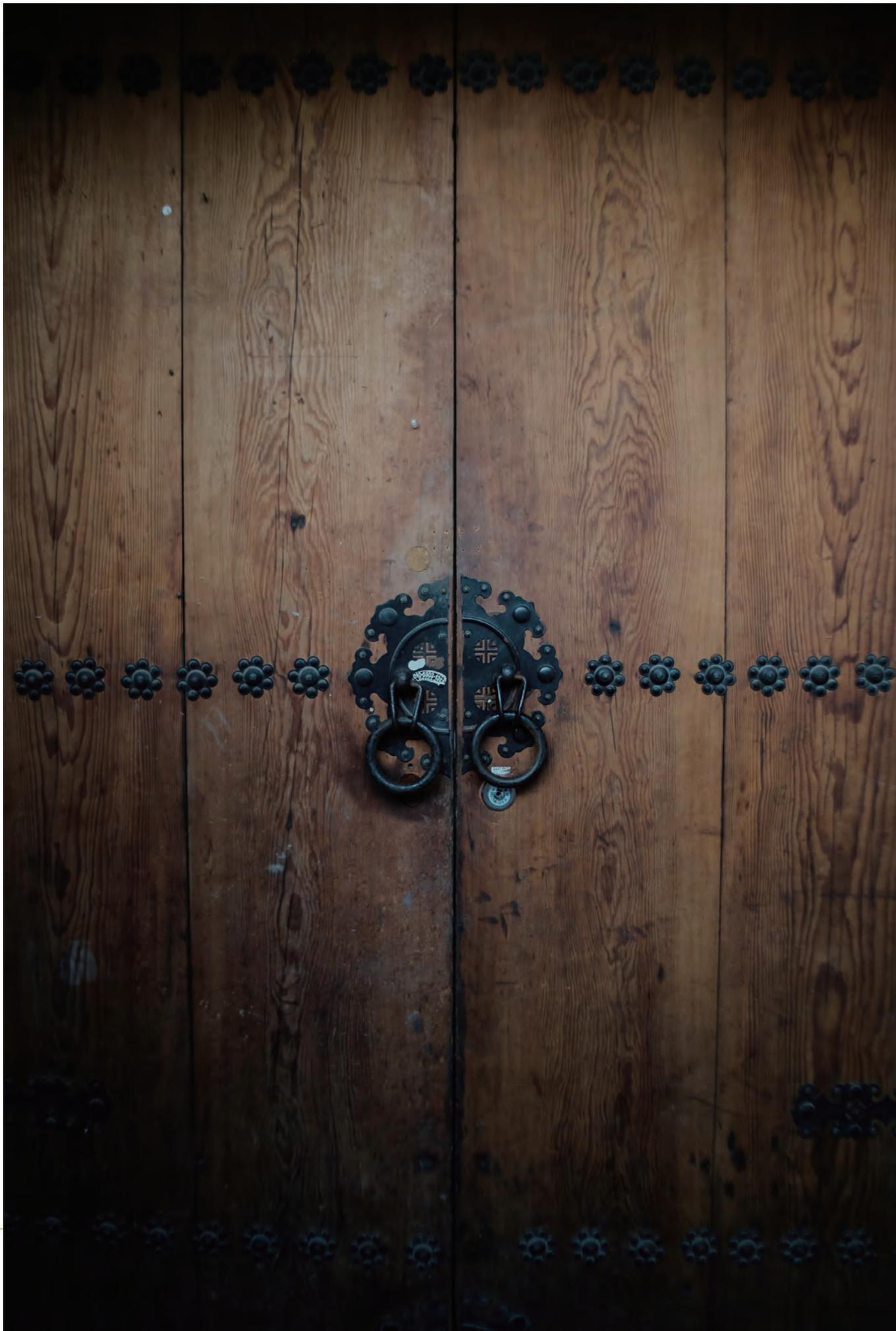


은상

대문

수상자 주성운

촬영장소 서울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은상

대문

수상자

주성운





은상

수상자

원혜진

담쟁이

촬영장소

김해한옥체험관





옛것이 살아숨쉬다

촬영장소 김해한옥체험관

은 상

수상자 원혜진

매 화

촬영장소 김해한옥체험관





동상

고색문비(古色門扉)

수상자 김경난

촬영장소 안성 청룡사



촬영장소 안성 청룡사

동 상

고색문비(古色門扉)

수상자 김경난

촬영장소 안성 청룡사





동상

한옥의 미

수상자

김택수



촬영장소

밀양 표충사



촬영장소 경주 종오정

동 상

한옥의 미

수상자 김택수

촬영장소 청도군 선암서원





선을 즐기다

수상자 이소라
촬영장소 창덕궁 낙선재



입 선

창을 통해 어렴풋이

수상자 이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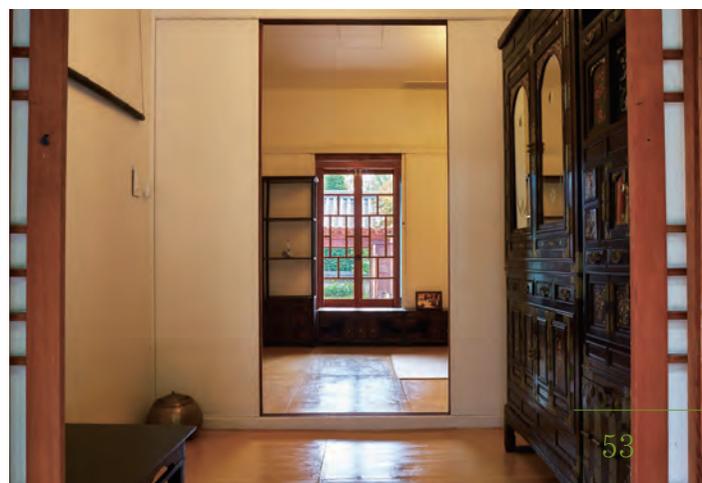
촬영장소
경복궁 내경전



촬영장소
창덕궁 낙선재



촬영장소
부춘 백인제 가운





길 그리고 집

수상자 심윤보
촬영장소 제주 돌문화공원



입 선



한옥, 현대의 美로 물들이다

수상자 강민석
촬영장소 서울 안국역 일대





완재정의 3계
(봄, 가을, 겨울)

수상자 유명해
촬영장소 밀양 완재정

입선



탱자나무와 수당이남규고택

수상자 김지웅
 촬영장소 예산군 대슬면





단청, 그 아름다움으로 처마를 물들이다

수상자 나재범
촬영장소 경복궁



입 선



입춘대길 건양다경

수상자 최재영
 촬영장소 대구 옷골마을





한옥과 자연물의 조화

수상자 황보정심
촬영장소 경주 교촌마을





사진부문

- 청소년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정겨운 한옥풍경

수상자

박은기

촬영장소

경주 교동마을



금 상

따스한 한옥

수상자

권진희

촬영장소

울산 동헌 및 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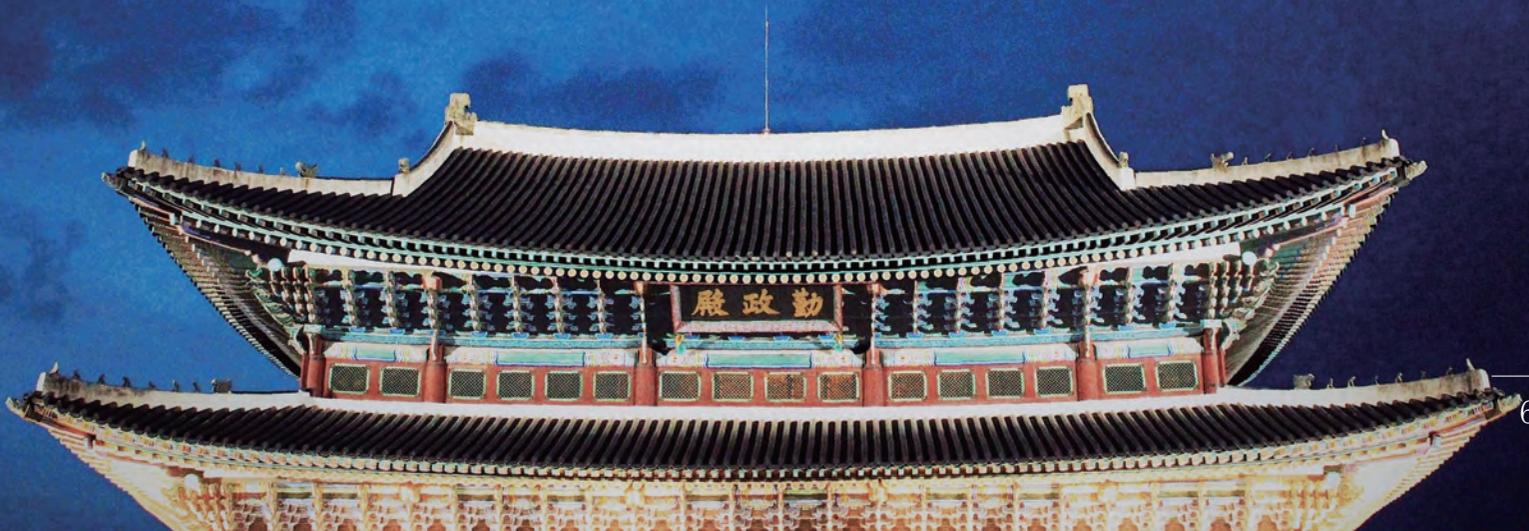
붉은 광화문

수상자 이도연
촬영장소 광화문

은상

경복궁의 밤

수상자 정다은
촬영장소 경복궁





북촌의 여러 한옥

수상자 김준수
촬영장소 북촌한옥마을

동상

서원의 밤하늘

수상자 김석희
촬영장소 여주 기천서원





짜

수상자 강시연
촬영장소 북촌한옥마을



아직도 높아보이는 담벼락

수상자 이상현
촬영장소 전주한옥마을

입선

문지기

수상자 가상현
촬영장소 광화문



여기에도 저기에도

수상자 변의현
촬영장소 북촌한옥마을





숨어있는 한옥의 아름다움

수상자 임서현
촬영장소 북촌한옥마을



고즈넉

수상자 신다은
촬영장소 강릉 선교장

입 선

시선 속 한옥

수상자 이준석
촬영장소 서울 인사동



구름같은

수상자 김문주
촬영장소 덕수궁





계획부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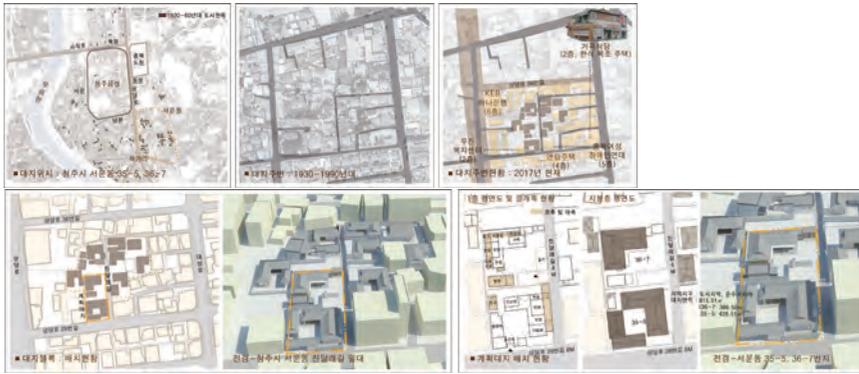


한옥의 보존과 복원이 시대에 뒤처지는 보존적인 건축문화로 인식되고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는 현재,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주변과 순응하여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인가?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청주 도심의 한옥 밀집주거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적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현대적 한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평면도





계획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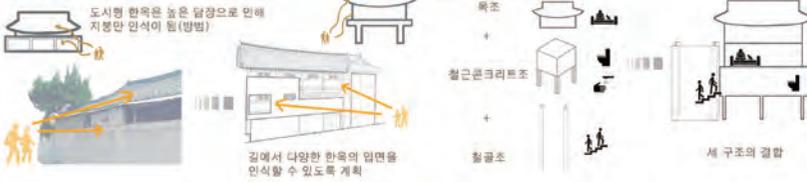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장관상

개념

시선과 중정



길과 한옥



환경설비



해화당(諧和堂), 서운동 진달래길 게스트하우스

옛 청주읍성 동문 밖 서운동 진달래길에 면한 한옥 군에서, 상당로 26번 길에 접하면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35-5필지와 개발이 어려운 인접 36-7필지를 합필하여 계획대지로 선정하였다. 이는 2015년에 수상한 '숨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필지를 확대하여 집합주택(게스트하우스)을 계획한 것이다.

배치 및 기능에 있어서, 길과 향에 대응한 기존 한옥의 배치와 2개 중정을 가능한 반영하였다. 1층 주차장과 상점, 2~4층 거주공간과 공유시설을 두고, 중정에 면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방 공간을 두었다. 또한 중정을 둘러싸는 4개의 매스와 이질재료가 만나는 부분의 분절을 통하여 트인(void) 공간을 두고, 대청과 누마루, 테라스와 발코니, 옥상마당 등을 두어 일조와 환기를 원활하게 하였다.

형태와 구조 및 재료에 있어서, 1~2개 층(일부 3개 층)은 RC조에 맞추고, 상부 층에는 기존 한옥의 모듈, 규모 및 형태를 가능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RC조에 한옥을 얹어 놓은 듯한 어색한 모습을 지양하고자 입면구성, RC조·목조·철골조의 하이브리드 구조, 이질재료의 접합부 상세에 유의하였다.

환경설비에 있어서, 2개 중정 및 사방의 트인 공간은 자연채광과 더불어, 음(陰)에서 양(陽)한 공간으로 흐르는 수직 상승기류를 일으킨다. 이는 좁은 골목길과 1층 주차장, 그리고 인접한 사이공간에서 발생한 찬 공기가 수직 상승하면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층마다 설치된 대청과 누마루, 옥상마당, 테라스와 발코니이외에 분합문과 교창을 통하여 수평적인 자연환기도 발생하도록 하였다.

청주대학교

이명희

김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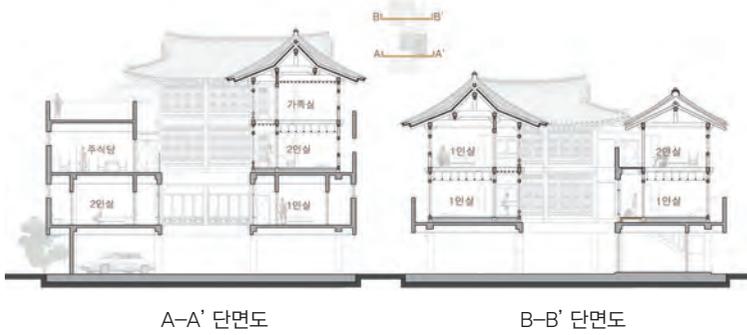
임선영

김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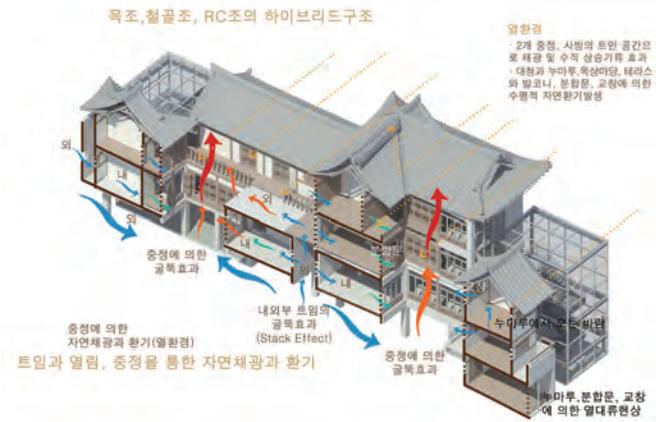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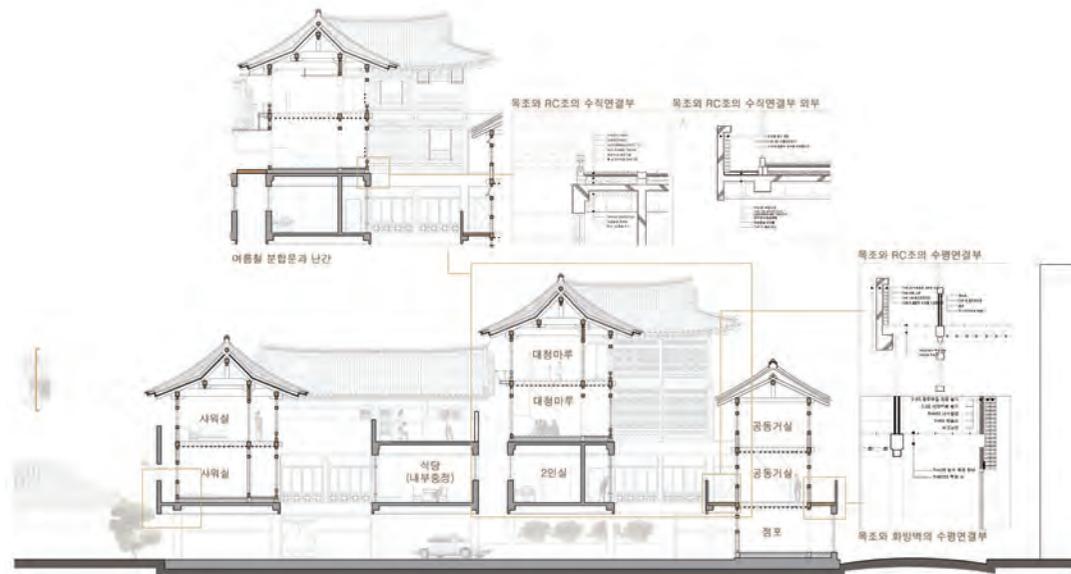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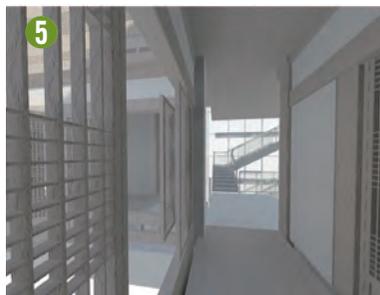


구조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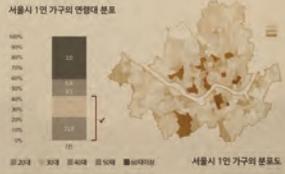
종단면도





[인기구와 천년종, 그리고 木工]

서울시 내 1인 가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삼고,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대학가 중 한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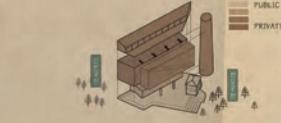
정면 01
입술의 모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낯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박이 열리고, 지역과 주민은 주거 구성원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이 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필요한 가구를 만들고, 집을 꾸밀 준비를 한다.



정면 02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성된 각각의 주거는 그 목적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주요구조를 제외한 벽체와 기둥, 바닥을 취합과 필요에 따라 교체하는 작업은 구성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정면 03-1
공방과 갤러리로 구성된 1층 공간은, 가로와 공원 등 주변 도시조직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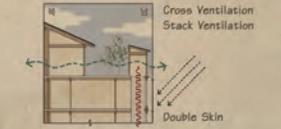


정면 03-2
한옥으로 지어진 갤러리의 1층에는 공방에서 제작한 가구와 소품들이 전시된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작품을 고르고, 직접 작가를 만나 가구를 주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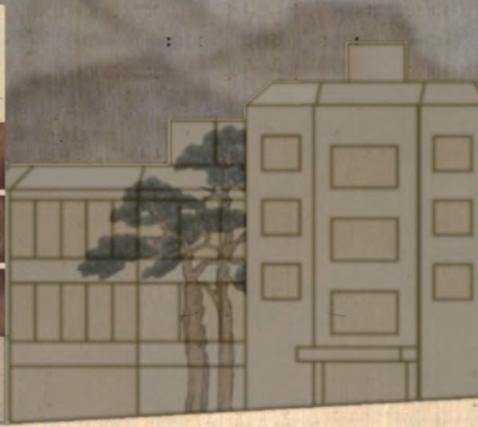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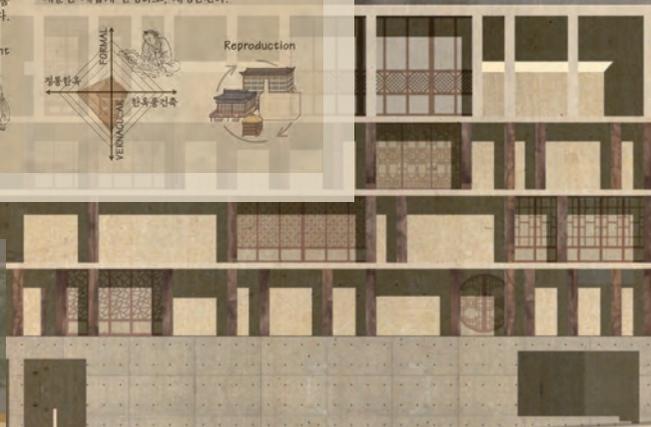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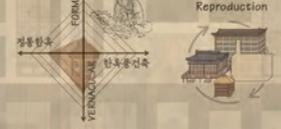


정면 04
옥상마당은 입주주민만의 휴식 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야외 작업장이 되기도 한다.

정면 05
취원기 냉방부하를 절감하기 위해, 이중외피와 급속환기를 활용한 자연형 냉방시스템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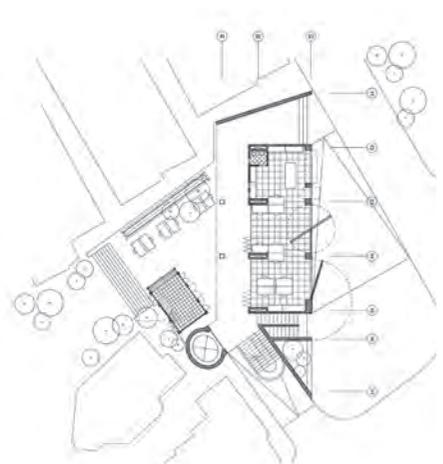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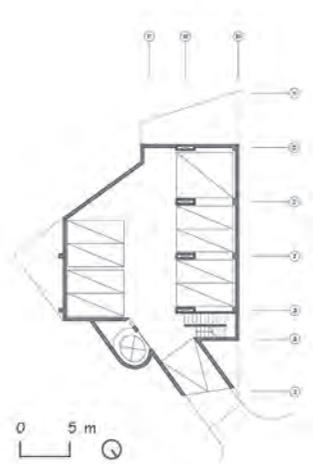
정면 06
작업장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적 작업들은 투박하고 비전문적이며, 동시에 지극히 모속적이다. 이곳 주거 구성원들의 손에서 우리 건축의 전통은 때때로 새롭게 탄생하고, 재생산된다.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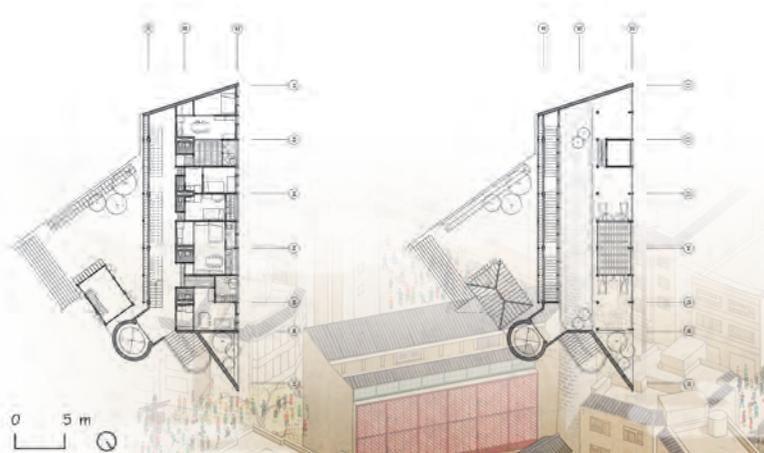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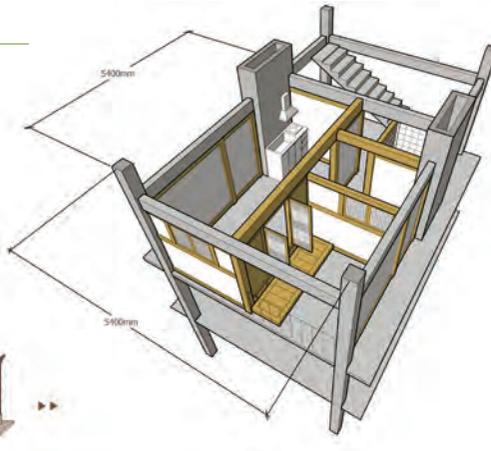
주거층(2-4층) 평면도

옥상층 평면도



본 계획은 한옥의 목구조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고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과정이며, 비전문적 집단에 의한 건축적 전통 Architectural tradition의 재생산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축 활동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토속 Vernacular 건축으로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계획부문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한옥을 가장 한옥답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먼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한옥’의 범주 안에서 살펴보자. 건물은 제각기 그 기능과 형태가 다를지라도, 대부분 목가구조의 이음과 맞춤으로 그 뼈대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의 한옥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시공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영역이며, 여전히 한옥=고급건축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수한 기술과 고급건축으로부터의 탈피. 이는 분명 ‘한옥의 현대화’를 위해, 그리고 한옥이 현대적 주거의 대안이 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보통의 건축’, 그리고 ‘보편적 주거’를 향한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식 목구조의 현대적 재현이다. 이는 단순히 목가 구조의 형태나 재료의 변화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기술과 실용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오늘날의 전통으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자족적Self-sufficient 기능이다.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인 가구와 목공방의 조합을 고안하였다. 건물의 아래는 공방, 위는 주거의 기능을 넣고, 주택조합의 방식으로 초기 입주민을 모집한다.

자재의 반입과 가공,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의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그리고 주거 공동체 구성원들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1층의 공방에서 시작해 각각의 주거로 이어지는 공정은,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필요로 한다. 옥상 작업장은 이 공정을 보완하고, 공동체의 작업은 전시판매용 갤러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로 이어진다.

주 건물은 SI구조와 목가구조를 혼합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철골콘크리트로 된 주요구조부는 5.4x5.4m의 평면 모듈과 설비기동을 구성한다.

주요구조부 중 기둥과 보에는 미리 장부함을 두는데, 여기에 가공된 목부재를 결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천장과 바닥의 마감, 그리고 벽의 형태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여러 방식의 결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필요와 개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공유된다. 각각의 주거가 지닌 일정한 면적의 파사드가 모여 하나의 플라자가 되고, 누군가 즉흥적으로 만든 디테일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꾸며나가는 공동체의 주거문화는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건축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 이곳의 구성원들에 의해 우리 건축의 전통은 새롭게 해석되고 재생산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박하지만 어찌면 ‘토속적’이라 할 수 있는 이 결과물들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축적 전통, 그리고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도시 안에서 한옥이 비로소 공동체의 건축, 그리고 보통의 건축 되는 순간이며, 이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전통으로 이어진다.

木工; Reproduction of Vernacular Architecture

서울대학교
박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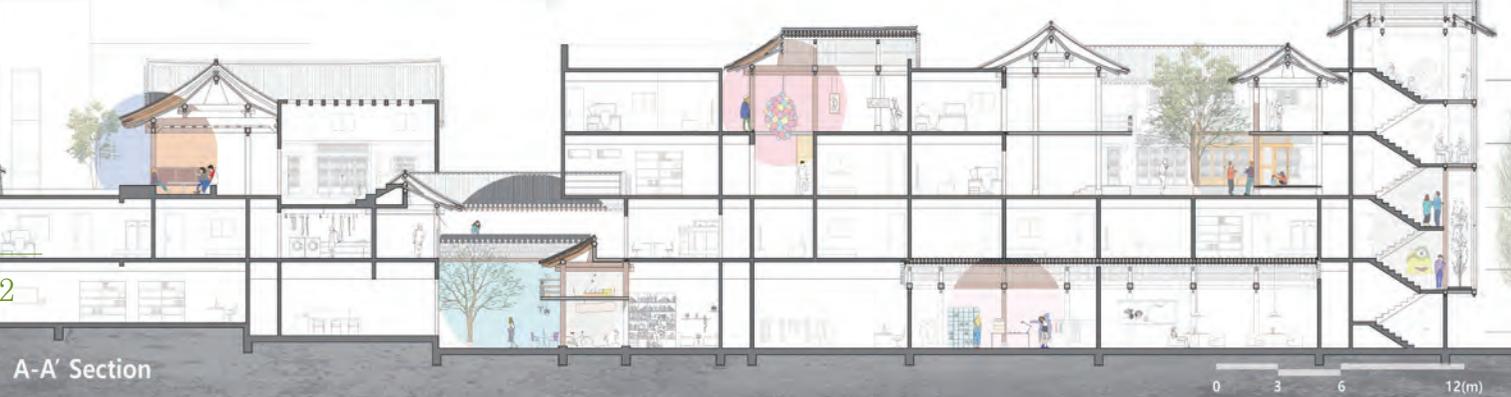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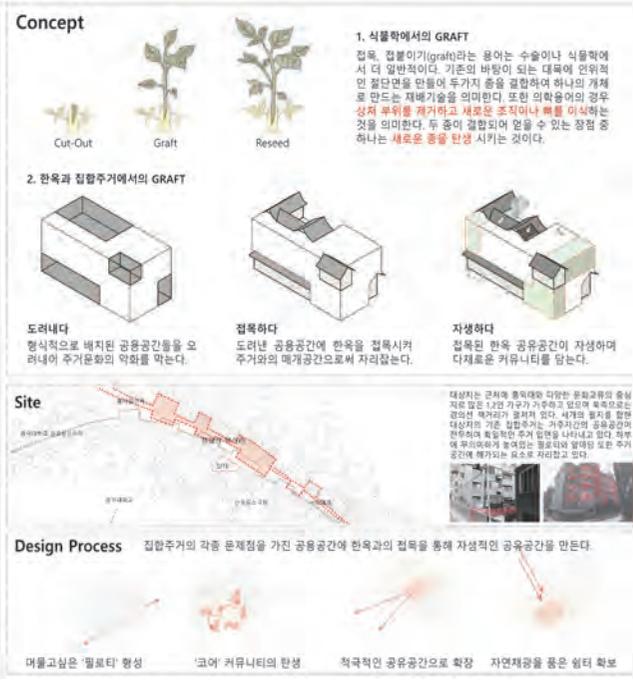


Prologue

#1 집합주거의 오늘
 오늘날 1.2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얼로너', '일코노미', '혼밥'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만을 강조하는 사회는 이웃을 101호 등의 숫자로 밖에 모르게 만들고 마치 **최수빈오지암** **희일와 된 채**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다. 마치 못해 소용을 위한 공용공간을 제공해 주고는 있지만 커뮤니티의 행위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한 배치가 오히려 현대 공동주거를 독방으로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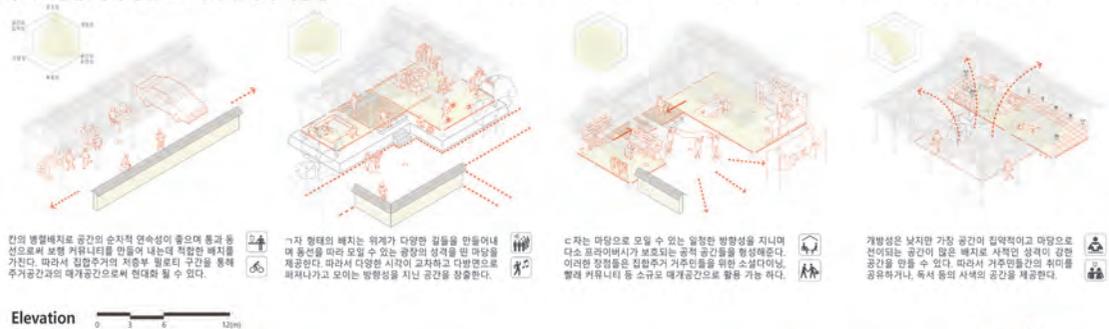
#2 감옥에서 한옥으로 - 공유공간으로버의 한옥
 한옥은 예로부터 개인의 안식처이자 소통의 공간이었다. 모임과 잔치를 담당하던 마당, 남과 **더불어 내어주는 미학**을 실천한 사당방, 진정한 소통의 경계였던 담장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나 때로는 개방적이고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한옥의 장점을 토대로 한옥을 현대화하려는 시도가 많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도들이 한옥의 대청마루, 기와, 마당 등의 특색요소만 사용하고서는 현대화라 말하고 있다. **한옥은 한 덩어리 그 자체로 존재할 때 한옥이다.** 칸으로 구성된 '채' 뿐만 아니라 마당너머로 보이는 '종강', '오브제'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추상적 공간이 한옥인 것이다.

#3 Graft in Hanok
 이에 한옥의 배치적 특성과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에 다채로운 공유 커뮤니티를 담아 삭막해진 현대주거에 활력을 심어주어 **주거와 공유 사이의 매개 공간**으로써 한옥의 현대화를 꾀하고자 한다.



주거 - 공유 매개 공간으로써의 현대화 가능성

한옥의 배치적 형태가 기존에는 거주와 양립을 받았다면 현대화를 통해 배치형태가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여 집합주거내에서 매개공간으로써의 활용 가능성 방안을 분석한다.



Elevation 0 3 6 12m



계획부문
금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감옥에서 한옥으로

오늘날 1,2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얼로너', '일코노미', '혼밥'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만을 강조하는 사회는 이웃을 101호 등의 숫자로 밖에 모르게 만들었고 마치 죄수번호처럼 획일화 된 채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다. 마지막해 공용공간을 제공해 주고는 있지만 커뮤니티의 행위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한 배치가 오히려 현대 공동주거를 독방으로 만들고 있다.

한옥은 예로부터 개인의 안식처이자 소통의 공간이었다. 모임과 잔치를 담당하던 마당, 남과 더불어 내어주는 미학을 실천하던 사랑방, 마루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나 때로는 개방적이고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한옥의 장점을 토대로 한옥을 현대화 하려는 시도들이 많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도들이 한옥의 대청마루, 기와, 마당 등의 특징요소만 사용하고서는 현대화라 말하고 있다. 한옥은 한 덩어리 그 자체로 존재할 때 한옥이다. 칸으로 구성된 '채' 뿐만 아니라 마당너머로 보이는 '풍경', '오브제'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추상적 공간이 한옥인 것이다.

Graft in Hanok

식물학에서의 Graft(접목, 접붙이기)라는 용어는 수술이나 식물학에서 더 일반적이다. 기존의 바탕이 되는 대목에 인위적인 절단면을 만들어 두 가지 종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재배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의학용어의 경우 상처 부위를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이나 뼈를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종이 결합되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려내다-접목하다-자생하다" 의 프로세스를 한옥과 집합주거에 적용시켜 구조적 차원(일체식+가구식), 시각적, 재료적 차원(건식+습식), 공간적 차원의 접목을 통해 한옥의 특성과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에 다채로운 공유 커뮤니티를 담아 삭막해진 현대주거에 활력을 심어주어 주거와 공유 사이의 매개 공간으로써 한옥의 현대화를 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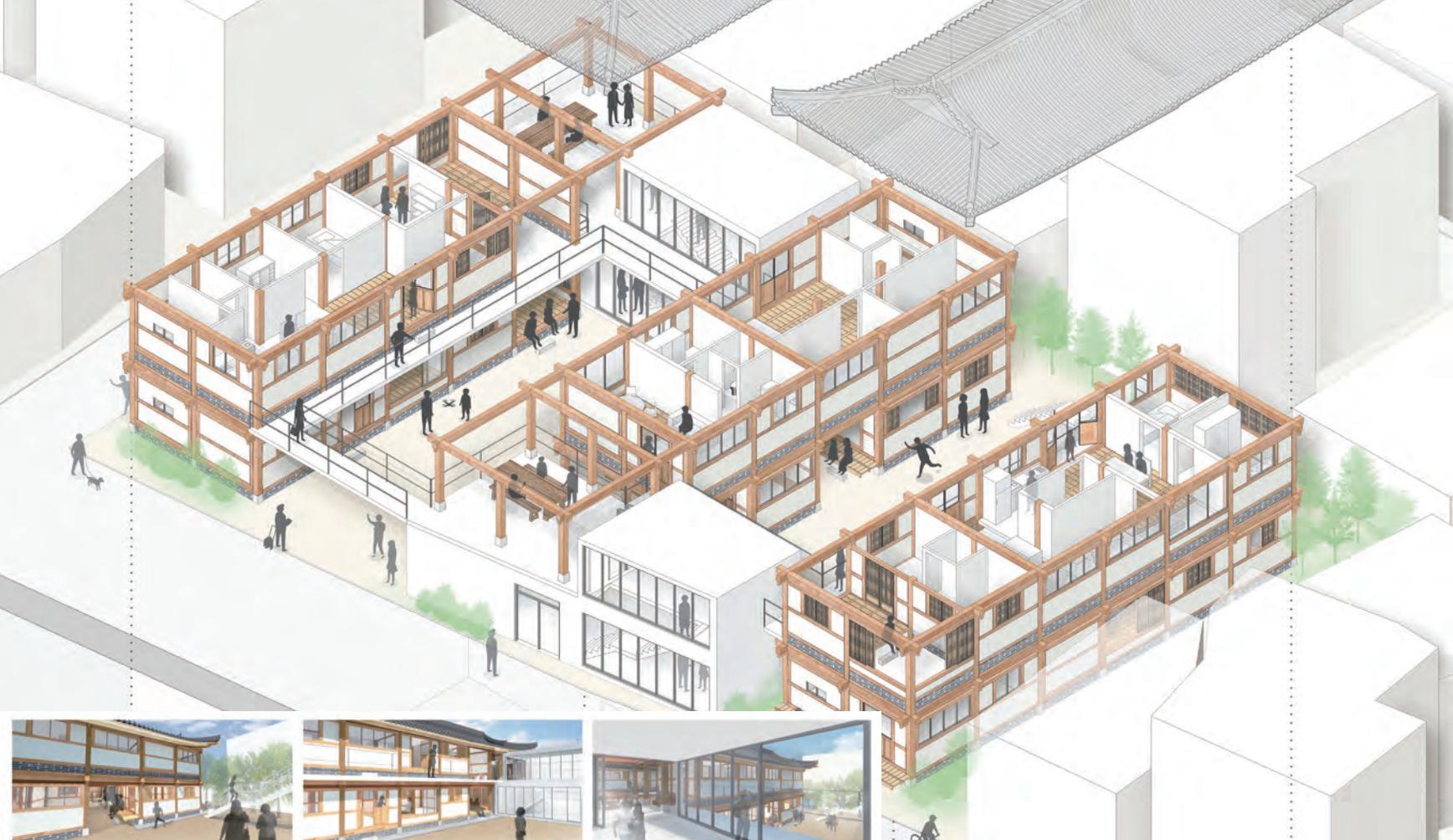


감옥에서 한옥으로
(Grafting;
recreating share
community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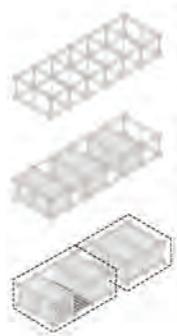
인하대학교
정찬우
구동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승모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원



건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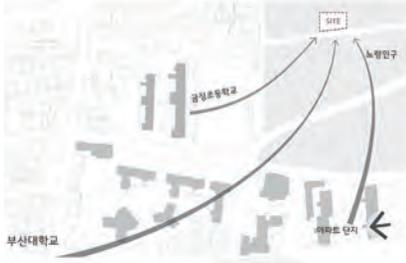
현대인들의 삶은 다원화되었다. 현대주택의 60% 이상을 차지 하는 아파트는 다원화된 현대인의 삶을 담지 못한다.

한옥은 플랫폼이다. 목조기둥으로 이루어진 칸이 모듈을 형성하고 벽과 창호가 자유롭게 구성돼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 부재의 규격화만 이뤄 낸다면 수천년간 그려왔던 이 시대의 다원화 된 삶의 양상을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둥과 보로 구성된 플랫폼에 몇가지의 기본유닛을 형성해 주고 이는 거주자의 취향대로 확장되고 축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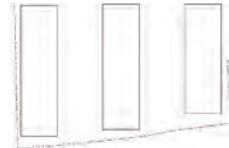
대지 분석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40번길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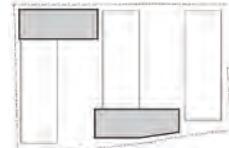


고령화된 주거지 인근에 초등학교, 대학교,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세대가 한데 어우러지기 적합한 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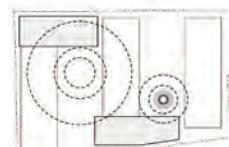
공공공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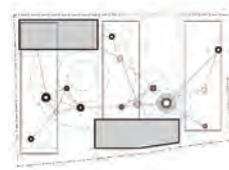
다원화된 삶을 담은 주거패스는 일조를 위해 남향으로 3동 배치



주거의 일조를 방해하지 않는 동서방향으로 현대주거에 필요한 기능을 담은 매스 삽입



그 사이에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개의 마당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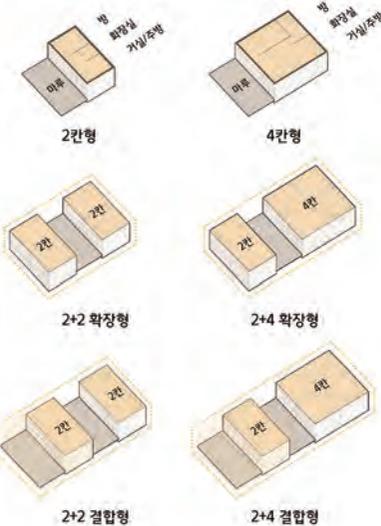
주민들의 관계가 형성되며 소공동체가 형성되 다원화된 생활을 녹여낸다.

벽 모듈의 가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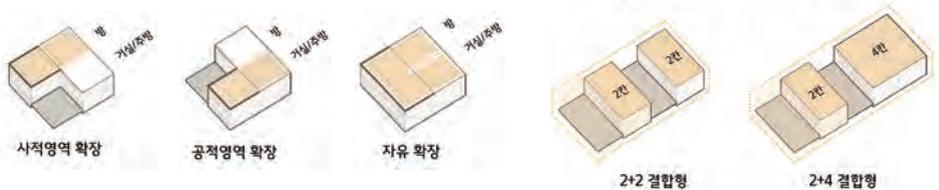


한옥벽의 가변적인 특성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형성하는데 적합하다. 마루에 이런 특성을 강력히 부여해 선택적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형성에 다원화된 삶을 담았다.

유닛의 형성방식



유닛의 확장방식



1F, 3.노부부 - 한때와 함께 요양하는 삶
#스막 #산책이 좋아 #반찬은 취미 #아름은 시계

평면유형 - 4칸, 2칸마루
확장유형 - 마루 반 축소

노부부가 사는 공간이다. 나이가 들어 큰 집을 관리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마루를 반 칸 축소했다. 축소한 공간에는 걸이 생겼다. 남은 반칸의 마루에 걸어 지나가는 아모과 입수를 나누는 것이 노부부의 낙이다.

1F, 5.중년부부 - 노모와 함께하는 삶
#우리 어머니님 #대청거실 #추억 속의 집

평면유형 - 4칸, 2칸마루 + 2칸
확장유형 - 마루 반 내부화, 내부변경

노모를 모시고 사는 중년부부의 공간이다. 출입구의 좌측은 노모를 위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2칸 우측에 있는 주방을 제거한 후 3인 이상의 가족을 위한 다용도실을 설치했다. 외부에 있는 마루의 반을 내부화하여 대청의 느낌이 살아있는 거실을 만들었다.

2F, 9.성남 -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삶
#일일 #여행작가 #작업실 #모임이 좋아

평면유형 - 2칸, 2마루
확장유형 - 마루 전체 확장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공간이다. 작업이 여행작가와 모임이 있다. 집에 있을 때면 다용도실을 내놓을 때만 마루를 가지곤 한다. 마루 전체를 확장하여 작업실 겸 회의실을 쓰고 있다. 그 중 회의실 바닥은 기존의 마루를 유지해 제미난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

2F, 10.소기업 동업자 -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삶
#비즈니스 #직업실과 휴게실 #집은 작업에서

평면유형 - 4칸, 2칸마루 + 2칸, 2칸마루
확장유형 - 마루 전체 확장, 내부화

소기업 동업자가 사는 공간이다. 두 개의 마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는 거실이 되었고, 하나는 마루를 제거해 산책을 신고 다니는 오피스로 활용하고 있다. 오피스에서는 개인의 작업을 하며, 옆의 작은 다실에서 손님을 접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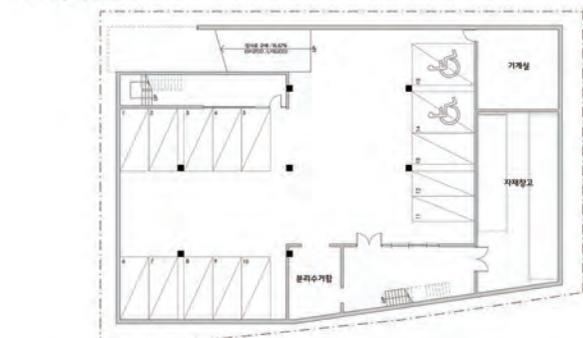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에는 주차장과 자재창고가 있다. 자재창고는 규격화 되어 생산되는 자재를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단면도



계획부문 은상

한옥 플랫폼:
다양한 삶을 담는
그릇

부산대학교
강민경
박진석
문종욱

**#01. "대학생 형, 누나들이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연예성도 애워서 너무 좋아요!" _OO중학교 K군**

학생들의 공부와 기쁨 또는 다양한 활동으로 활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스페이스'를 통해 수면, 조음, 고음향과 스피커, 조명 등을 통해 다양한 대학 경험과 소규모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다.

**#02. "마침 배고왔는데 여기 근처에 보이는 한식 식당
이 있네요. 생각보다 편해요!" _영동대 H씨**

기존에 후미진 쪽으로 밀려 놓았던 식당과 한식음식 전문음식점을 한층 더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실내와 실외에 위치한 한식 식당 등 휴식 공간과 조리를 제공한다.

**#03. "이이고- 부류이 안좋았는데 젊은 친구들
덕분에 생겼어. 고마워!" _최근 이사는 노부부 A씨**

최근 이사를 후미진 쪽으로 밀려 놓았던 식당과 한식음식 전문음식점을 한층 더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실내와 실외에 위치한 한식 식당 등 휴식 공간과 조리를 제공한다.

나는 대학가 자취 생활 2년차의 대학생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는 '2030' 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는 열정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홀로 살아가고 있다.

이전의 우리는 서로를 'OO 고등학교 O씨' 등으로 부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채로 살아왔다. 이사를 오면 이웃을 위해 모두가 나누었고, 내 집 앞마당에서는 수다와 교류의 공간이 있었다. 따라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내가 아는 것을 공유 하는 법을 아는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04.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용공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_마을 푸네회장 P씨**

중요구 계층은 창경궁 근처에 있는 저밀도 특성 때문에 개발계획이 많이 용이한데, 상가는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용시설은 부족하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05. "최근 저주를 시작했는데
조용하고 침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_공부의 신 O군**

대상이 주변에 많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다양한 전문직 학생들이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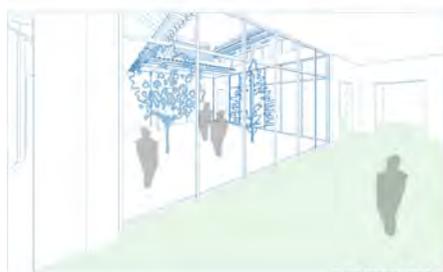
- 1. 한층 MASS 형성 (19기 + 기존 19기)
- 2. 주거층이 중심을 통한 공적 영역 확대
- 3. 재외 유학생을 통한 다양성 확보
- 4. 유년제 위한 주거 유닛 공급



**#01. 흐름을 통한 자생적 커뮤니티의
재생, 한옥에 운치를 더하다.**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연결성, '흐름'은 주로 외부공간의 형성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벽과 기둥은 물리적으로는 닫혀있으나 시각적으로는 열려 있어 시원한 공간 흐름을 만들어내고 각 유닛으로 만들어진 한옥은 각각의 길들을 가지게되며 통로로서의 공유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의 관계맺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장소성을 만들어 내고 그속에서 주거의 의미를 담아낸다.

㉠ 다목적 휴게실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



**#02. 중층화된 채와 채, 공간속에서
양유하다.**

한옥의 배치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도시주거 프로그램에 걸맞은 단위유닛으로 조개어져 건축의 한구성요소로 작용해 통합성을 이룬다. 채와 채들이 중첩되어 자연스레 생기는 마당은 시각적 교류감을 형성할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벤트 발생을 유도하여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맺기가 가능하다. 마당 내외부의 경계를 짓는 우리는 단절과 연결을 매개하는 매개공간으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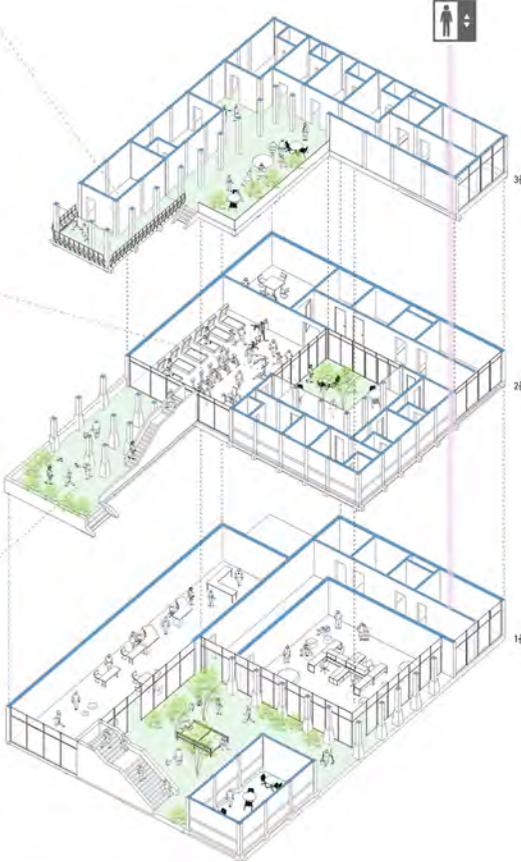
㉡ 내부 한옥중정을 바라본 모습



**#03. 한옥 단지와의 어울림, 도시경
관 속에 하나로 스며들다.**

사이드 주변 창경궁 일대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한옥 경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맥락을 고려한 한옥 단지로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 사적 공간으로 대표되는 주거건축에서 사적영역의 일부를 공적영역으로 내주어 단순히 사적영역으로서의 한옥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의 한옥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산책마당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



서측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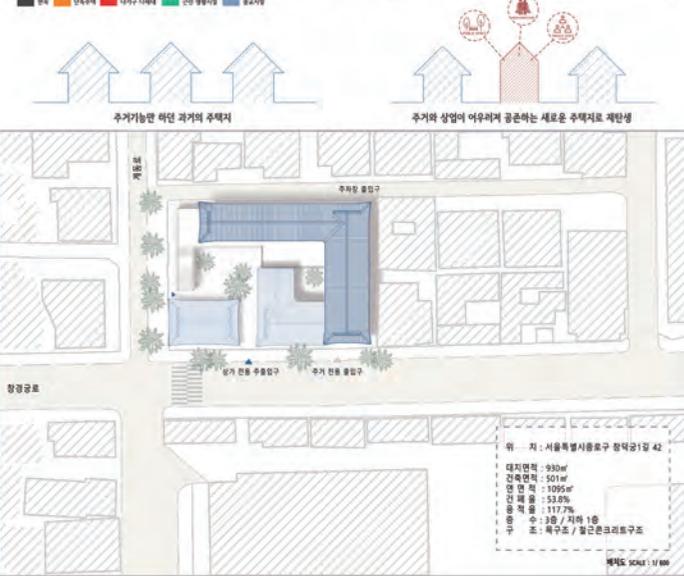
중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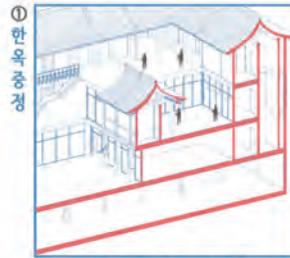


계획부문 은상

#사라지는 한옥들, 점진적 재생을 통한 가치 회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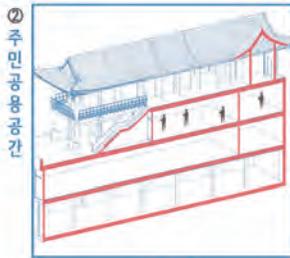
단면 다이어그램



① 한옥 중경

공적 영역 : 반 공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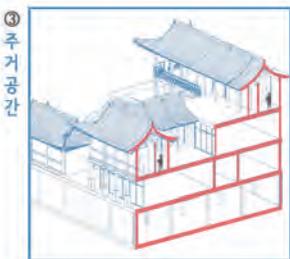
사각적인 교류감을 형성하는 중경은 내외부의 경계를 형성하는 유리를 매개로 장소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동선과 목적동선이 중첩되어 하나가 되는 이 공간은 반 공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이기도 하다.



② 주민 공용공간

공적 영역

주민 공용공간으로 쓰이는 헬스장 등은 거주민이 사용하는 분명한 목적 동선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적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한옥 유닛과의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



③ 주거공간

사적 영역

주거공간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장소로써 사적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공적영역 - 반 공적영역 - 사적영역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위계에 따라 접근하게 되어 한옥의 열려있는 기둥들을 따라서 반 공적영역인 마루와 모호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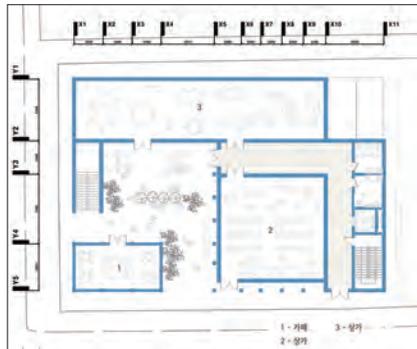


④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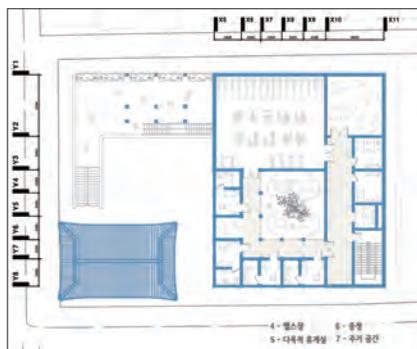
사적 영역 : 반 공적 영역

공적 영역을 지나 들어오게 되는 한옥의 마루나 휴게실 등은 일상생활동선의 중요로움을 가미하고 있다. 주거영역인 사적영역과 분할된 장소임과 동시에 한옥의 가변성있는 장소로 여닫게 되면 반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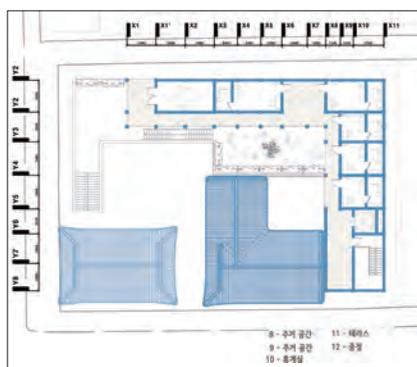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더불어 지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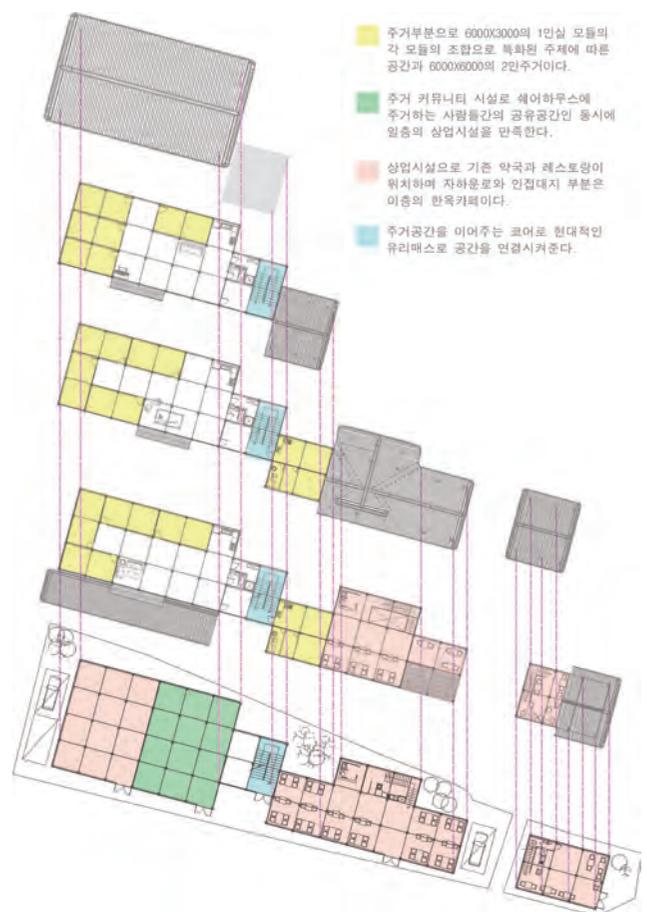
명지대학교
오경하
양연식
민경찬
지수현



SITE PLAN



PLAN



CONCEPT VIEW



ELEVATION



Modern Share Hanok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후 한국건축은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한국건축은 정말 말 그대로의 '한국의 건축'으로서 '한옥'으로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한옥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현대한옥은 더 이상 작품이 아닌 새로운 주거형태로서의 시도가 필요하다.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두 주제는 한옥의 고층화와 다양한 program이다. 이러한 결과로 계획된

'Modern Share Hanok' 은 현대사회의 청년주거환경 개선방안과 근생을 포함한 도시 내 저층 주거시설을 제시하였다.

Site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으로 주변에 서촌, 경복궁과 종로의 많은 오피스, 배화여자대학교와 상명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1~2인 주거인 'Share House'의 제시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는 고층부에 들어가며, 저층부의 상업시설 한 부분은 주거커뮤니티 시설로서 사용되도록 해서 그저 사는 곳이 아닌 삶이 있는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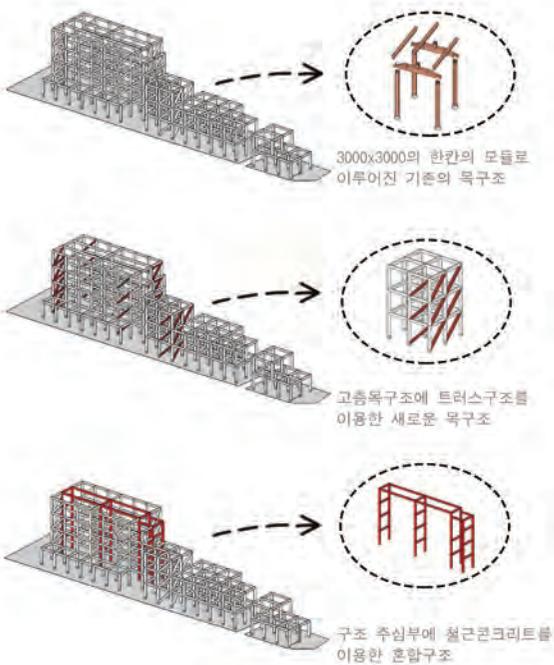
주거부분은 3000X3000 모듈로 짜여진 평면에 개인당 2개의 칸을 개인실로 활용하며 한옥의 높은 천정과외의 다락의 개념을 차용한 복층의 모듈로 경제적인 평면에 공간 활용이 최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층마다 모듈을 이용해 다양한 평면을 조합이 가능하며 그 조합 방식에 따라 주거유닛의 특화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매스의 형태는 지하문로를 중심으로 한 사거리에서 옆의 작은 길에 일자형태의 대지에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만들며, 뒤편의 인왕산의 흐름과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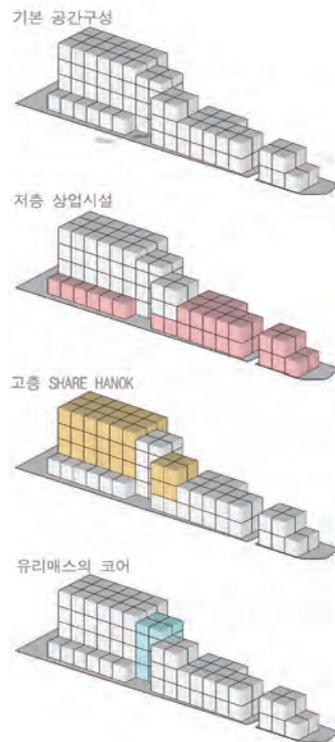
한옥의 3층 이상의 고층화의 해결은 목재로만 구조를 할 경우 집성목의 사용과 사각형의 구조에 대각선의 목재보강 이용한 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방법과 중심부를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하중중심을 주고 목재는 건물 외벽에 위치해서 하중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계획부문 동상

STRUCTURE DIAGRAM



PROGRAM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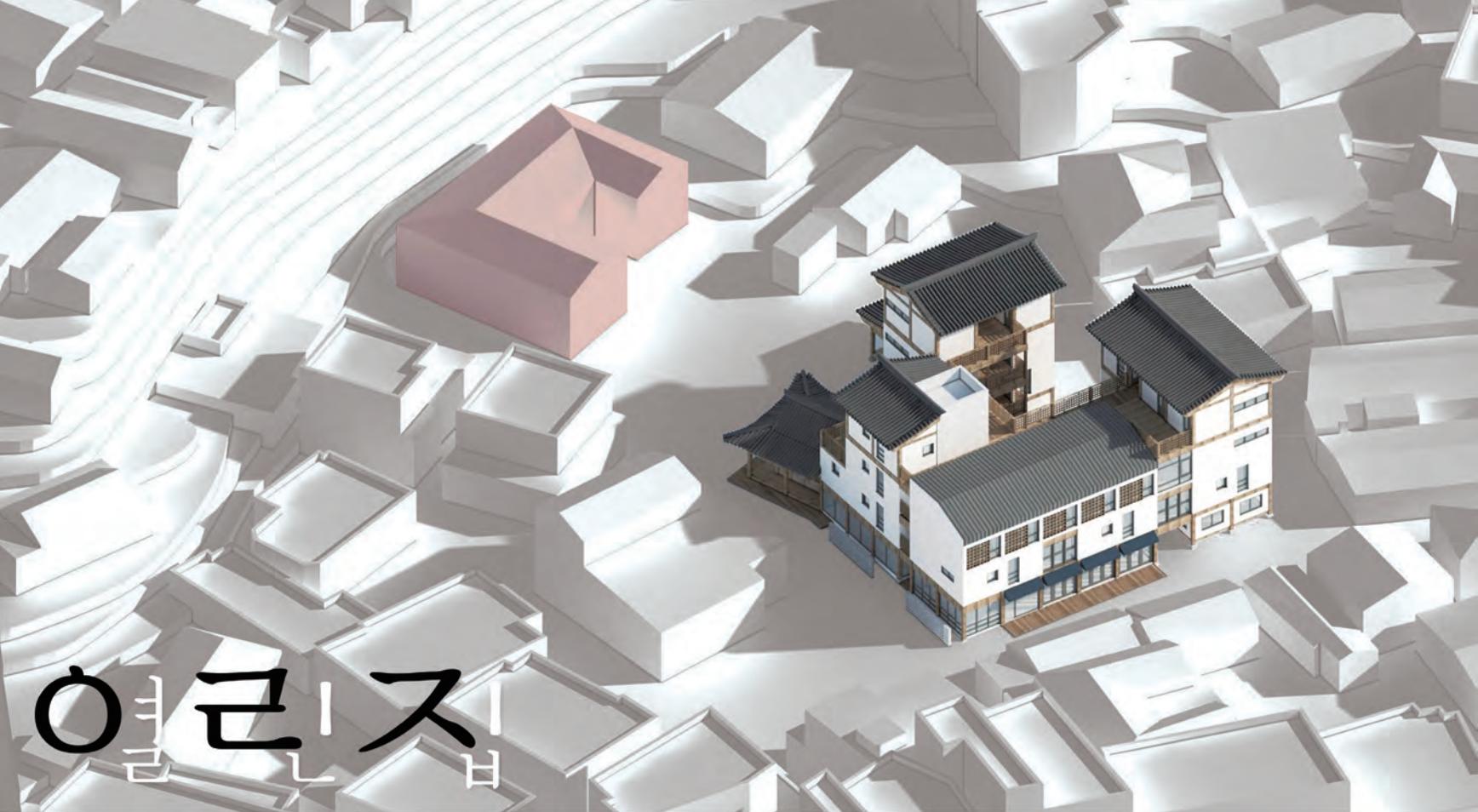


PLAN MODULE DIAGRAM



Modern Share Hanok

명지대학교
류현우



이런 스

PROPOSAL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에 있는 송자고택은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인 송시열의 거주지로 현재 문화재 제 39호로 지정되어있다. 300년간 터를 지키며 예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주변 주거지역 개발 악재로 일부 부정한 시선과 소외되어 낮은 주택과 담으로 둘러쌓여 있다. 폐쇄적인 송자고택의 안마당을 도시를 향해 열면서 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현대식 한옥을 제안한다. 경계없는 한옥의 전통성을 통해 골목을 존중하며 마을을 공유한다. 열린공간은 열린문화로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다.

CONTEXT

100년 역사 대전시는 앞으로 보존해야 할 역사의 흔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고립된 역사는 지역과 외면의 존재로 남게 되면서 주변 주거와 함께 쇠퇴되어 가고 있다. 보존이 방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열린관계 속에서 지역과 역사가 상생할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한옥의 전통성은 열린공간으로 조화를 이루며 조화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좋은 문화는 좋은 사람을 만든다. 닫혀있던 송자고택 안마당을 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외된 역사를 맞이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열린 공간으로 닫혀 있던 지역민들의 마을을 열어 공동체적인 삶으로 주변을 생각하면서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주거문화를 형성한다. 고립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열림뿐이다.



계획부문 동상

열린집

한남대학교
노준호
조창희

step 01

열린집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성을 분석하여 계획한다.

step 02

남북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중앙공간 수반인 오픈스페이스를 중앙부에 형성한다.

step 03

기존의 블록으로 적용하여 건축적 요소, 구조요소, 수직단면 등의 요소를 제공한다.

PROGRAM

multi - stage module
open
community
garden
commercial

GROUND FLOOR

1. 식당
2. 카페
3. 작업

2ND FLOOR

1. 오픈스페이스
2. 커뮤니티 공간

3ND FLOOR

1. 커뮤니티

4ND FLOOR

PROTOTYPE

3M X 3M 칸 모듈 조합으로 자유로운 변화가능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이 용이 할 수 있으며 RC구조와 목구조의 경구 및 조합식은 필요에 따라 보수나 개조가 용이 함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 볼 수 있다. 기변성을 통해 다양한 전용공간과 공용공간 또는 공유공간의 조합으로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strategy 01
열린 공유공간과 진입마당

세대간 소통을 고려하여 공유공간을 배치하고 진입마당과 열린연계를 통해 활동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한다.

strategy 02
열린공간속 수직마당

수직으로 열린 외부를 통해 시각적으로 교류하여 스킵적 장어로 세대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도록 계획한다.

strategy 03
녹색마당

옥외공간의 대부분 녹지를 존중하여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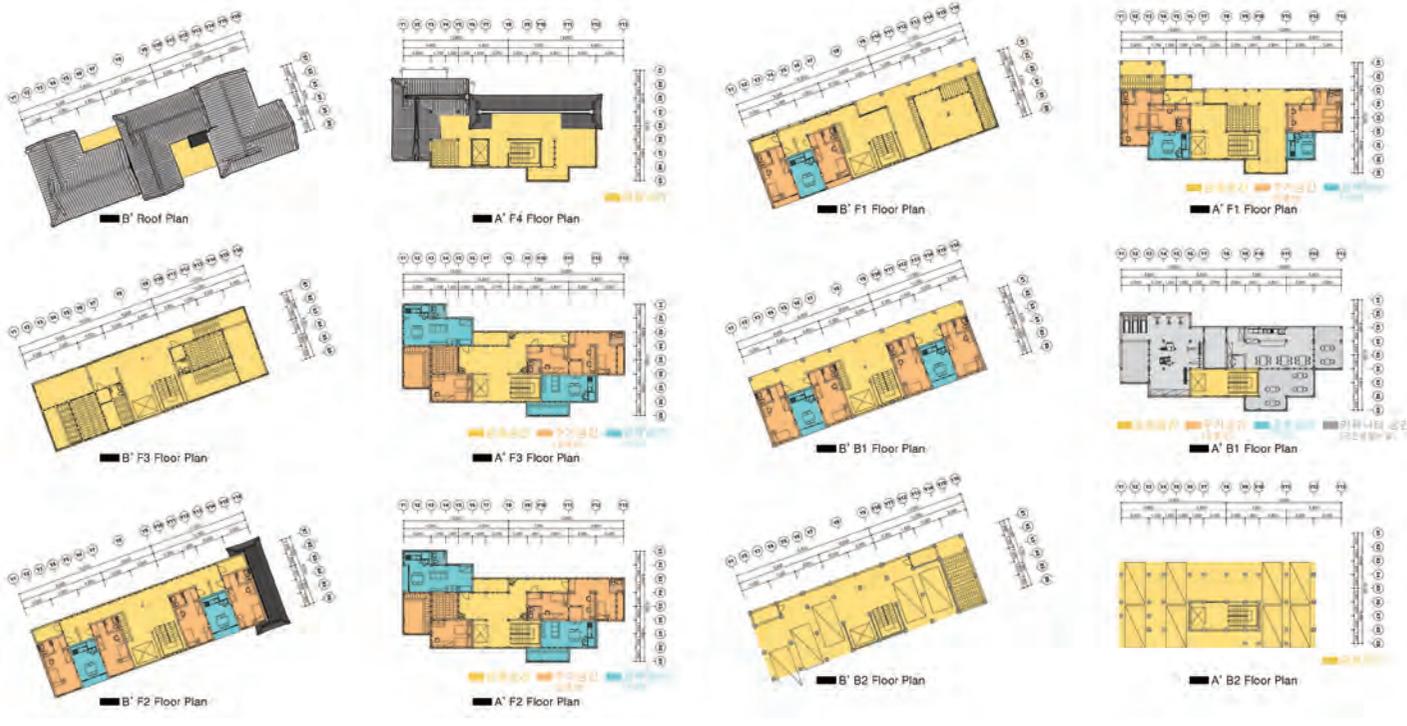
strategy 04
중정과 함께 하는 공간

중정을 통해 열려 저층부 근린시설 이용자 및 기타 유흥인구의 주민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계획

strategy 05
지역을 향해 열린 공간

키워드로 이어질 근린공간과 조합되는 열린공간으로 내부적, 외부적으로 지역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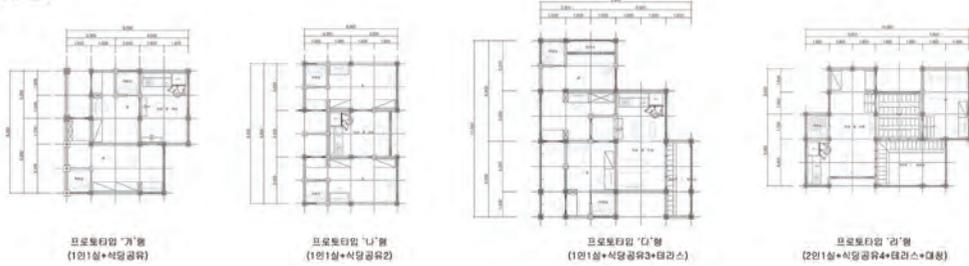


검이불루 화이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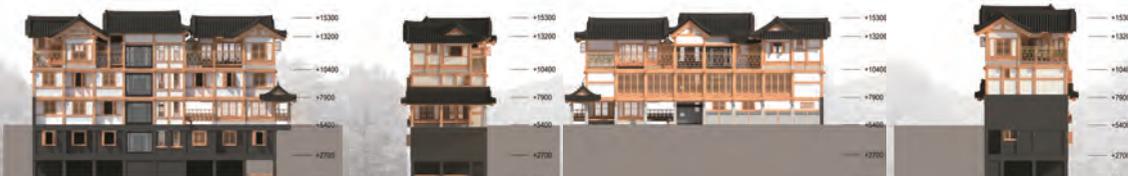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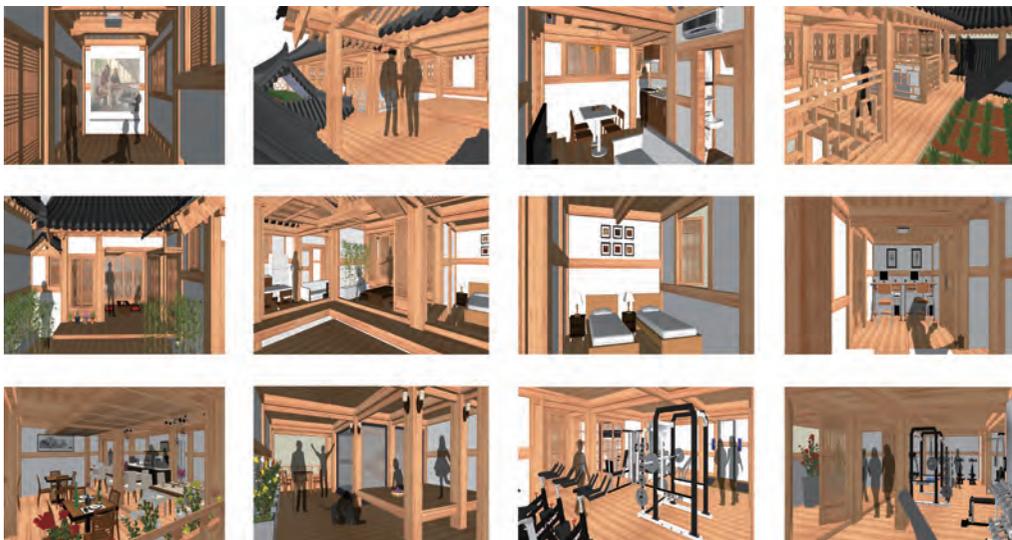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35-28, 29 ~ 47로 15개의 필지로 총 면적 984.6㎡이다. 바쁜 현대사회에 의해 이슈가 되는 1~2인 가구, 혼술·혼밥족 증가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지 북쪽에 위치한 원서동 빨래터를 보며 우물과 빨래터 등 물을 공유했던 조상의 생활 모습들을 떠올려 개인과 나눔의 공간을 구분 짓고 식사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했다. 대지주변에 벽돌조 건물이 무분별하게 밀도 높게 개발되어 창덕궁의 경관을 해치기에 우리는 그에 맞는 수직적 한옥의 현대화를 계획했다.

대지 형태가 좁고 길어 평면은 한 칸(3.3 x 3.3)을 기본 모듈로 정하여 1~2인 가구에 적합하도록 소규모 평면을 계획했다. 동측과 서측의 대지 높낮이가 5M정도 차이가 나며, 1층은 주차장과 외부 커뮤니티 공간을 2층은 카페, 헬스장으로 동네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주민들과의 동선은 분리했다. 주민사랑방을 크게 두어 누구나 휴식하도록 하고 부분 대청과 쪽마루로 커뮤니티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필로티로 된 부분은 바람길이 되며 창덕궁의 전경도 바라 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전망이 좋은 동향을 주향으로 선택하고, 거주영역에 프라이버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은 들창과 살창을 두어 외부와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주영역은 상층부에 두어 외부로부터 소음과 시선을 차단하고 공용공간에 화단과 대청을 제공하며 주민이 직접 가꾸며 자연스러운 커뮤니티를 유도하여 거주성을 높였다. 옥상부는 주민 사람들만 이용하게하고 경치를 감상하고 차도 마시며 감정과 고만을 공유하며 외로움과 인간성의 부재를 해소하도록 했다.

■ 평면 모듈



■ 구조적 해결



계획부문 동상

계획부문
동상

검이불루 화이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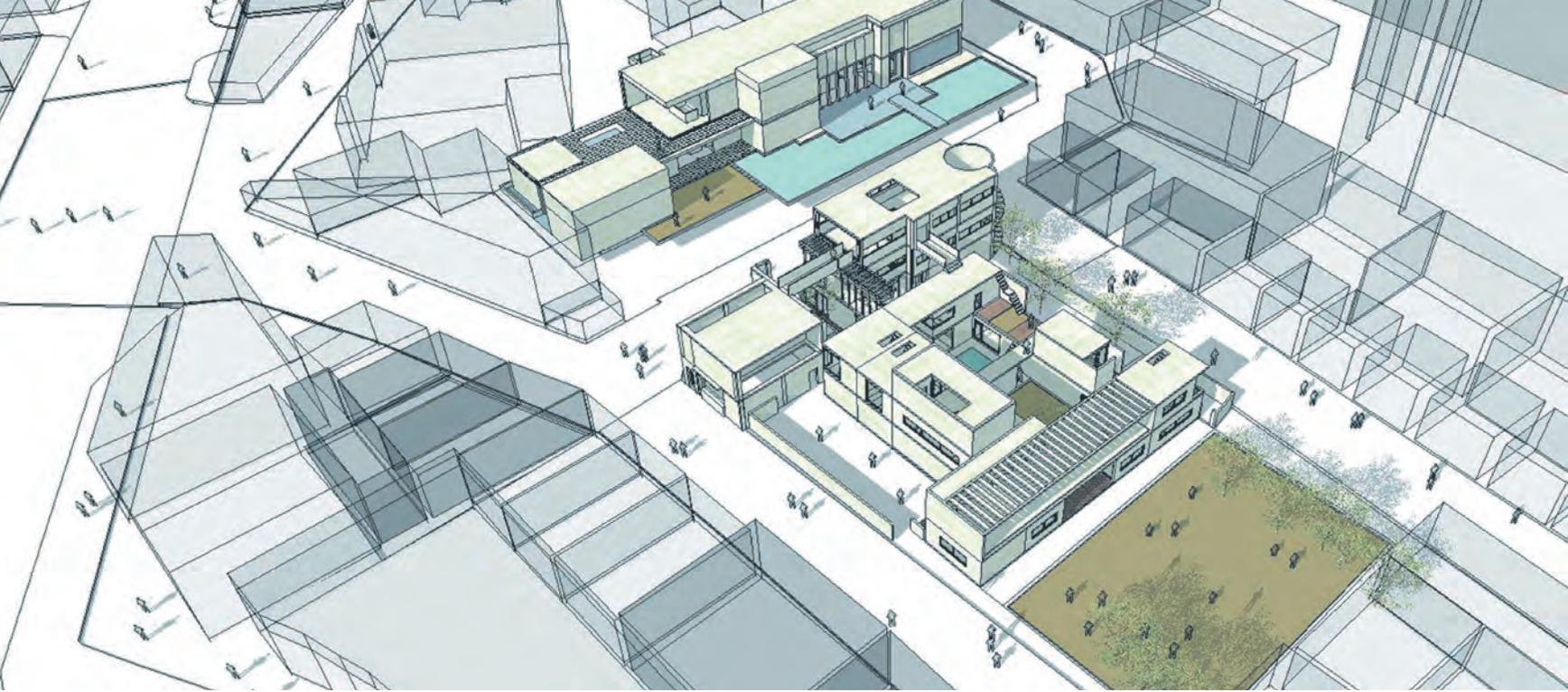
검이불루
화이불치

원광대학교

이공명

김정현

김혁진



한옥의 현대화. 우리시대의 한옥

한옥의 공간 구조는 최소의 공간인 '방'을 가만두지 않는다. 방과 마루 그리고 방, 마당으로 공간은 끊임없이 연속된다. 한옥의 공간 구조가 주는 울림은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구성원들의 소통의 창구는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비어져 있는 공간은 작동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어야한다' 한옥이 주는 즐거움은 사람의 생활모습이 담기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바로 한옥의 비어져 있는 여러 보이드 공간은 글 속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내려 가는 것과 같다. 행간에 숨겨져 있는 풍부한 상상이 글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옥의 비워진 공간은 일상이 담기는 공간이 된다.

SOLUTION. 한옥의 현대화 - 무소통의 도시에서 한옥이 해야 할 역할은?



한옥 내부 구조 vs 현대 복도식 아파트 구조

방들이 남는 방들은 슬리드로 굳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멸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이자라고 분석하였다.

[한옥의 마당과 채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소통의 장소를 만든다]

우리시대의 한옥, '전통적 한옥이 현대적 거주를 위한 건축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연속성 - 1. 시간의 연속적 흐름 2. 개구부를 이용한 직경, 광경
가변성 - 1. 문의 조차와 창문의 조차 (자유로운 평면) 2. 한옥의 돌출

채의 조차

: 문 - 이질적인 여타와는 달리 방은 방이 그대로 -> 통로의 차이
: 문 / 외의 구분 - 닫힘과 열림의 이동성 -> 사람의 심리를 반영
소통과 비소통을 사용자가 문의 조차를 통해 채를 조차

중심성 (방향성):

개인공간과 사적공간을 분리하여, 건물 전체의 방향성을 부여한다

독립성과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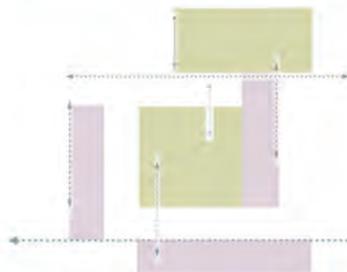
채의 분화를 통해 독립성과 관계성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

한옥의 치마를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로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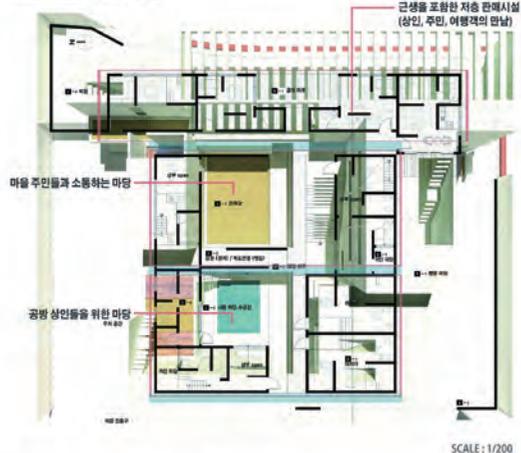
수평, 수직적 체계의 '일'을 통해 서로 엮여지면서 은유적으로 재현
순환하는 유선체계

행간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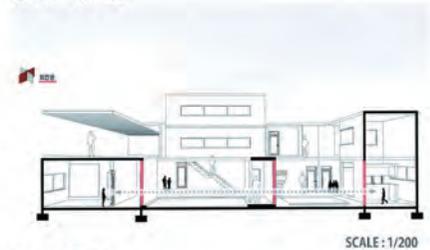
현대식 마당은 무엇인가? 단순히 비어져있는 공간이 유용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공간이 한옥이라 생각한다. 행간을 읽어내어 사람의 소통을 추구하는 것도, 끊임없는 변화의 속성에 맞서서 재발의 변화하는 것이다. 한옥의 비워진 공간은 일상이 담기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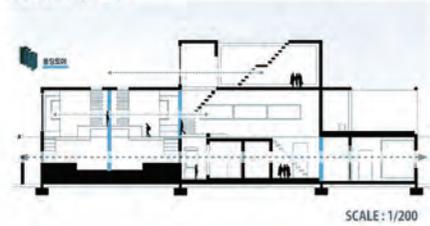
Master Plan + 배치 평면도



Section Plan A-A'



Section Plan B-B'



우리시대에 한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옥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가?

현대의 주거는 소통의 단절을 만든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내심 놀란다. 한 블록 넘어 한 블록마다 뻥뻥하게 들어선 아파트 천국이다.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공업화, 산업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었다. 너무나 수요로 인해, 개발자들은 주거를 층층이 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파트 공화국의 탄생이다. 4차 산업 혁명을 목전에 둔 현대인들이 유독 외로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생각이 떠오르지만 건축적 시선으로 해석해보자. 현대의 주거의 대부분은 코어와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배열하거나 한쪽으로만 배열하는 복도식 주거환경이다. 공간의 활용도가 뛰어나기에 아파트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단순한 구조의 '방'구조는 방문을 닫으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의미한다. 방들이 닫힌 방들은 슬리드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내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계를 만들어낸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이다. 복도식 공간은 모이기에는 협소하고 연속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공간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단순한 구조의 집은 자연스럽게 소외를 부르고 삶의 의욕을 빼앗는다.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단순하고 변화없는 집 안에서 서서히 스스로를 고립시켜간다. 현재의 도시의 모습은 소통이 막혀버린 무소통의 도시이다.

PROBLEM STATEMENT

WHY?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이 노인들은 왜 고독사가 끊이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적 해결책은 있을까?

5.8 PY 문제는 집이다.
고독사하는 독거노인들의 집은 대부분 도시에서 소외되어 있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평균 5.8평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도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그들의 고독사나 사회적 소외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또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들의 현실세계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기존 주거가 야기하는 소통의 단절

<p>소외를 부르는 집</p> <p>이런 단순한 구조의 집은 자연스런 소통을 부르고 삶의 의욕을 빼앗는다. 노인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단순하고 변화없는 집 안에서 서서히 스스로를 고립시킨다.</p>	<p>소외가 힘든 마을구조</p> <p>모든 집들이 같아보여 획일적이고 대량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마을구조는 외국의 도로나 사민주의를 힘들게한다.</p>	<p>은둔형 외톨이의 공간</p> <p>4차산업사회에서 가상세계가 계속 확대되는 것과 반대로 현실세계의 소통은 단절된다. 아파트의 방 구조는 방문을 닫으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의미한다.</p>
--	--	--

현대 사회의 문제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인간 관계의 확장이 어려운 어려움-1인주거 & 혼밥문제... 소외된 상대적 커뮤니티 약자들이 상존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슬픈 뒷모습에 대하여 논하기를 꺼려한다. 프로젝트는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일상을 보듬어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공간을 가진 중정들을 형성하고 누정을 활용한 개방형 파빌리온을 계획했다. 또한 대지의 축에 맞춰 계획된 팔각지붕의 누정은 주변보다 높은 레벨로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현대인의 외로운 정주 환경 : 고립되는 사람들

소통의 창구가 단절 사람들이 마주한 외로운 모습

현대 사회의 문제, 개인화, 개인 소외현상, 관계형성의 어려움

새로운 인간 관계의 확장이 어려운 어려움-1인주거 & 혼밥문제, 소외된 상대적 커뮤니티 약자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커뮤니티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슬픈 뒷모습에 대하여 논하기를 꺼려한다. 프로젝트는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일상을 보듬어 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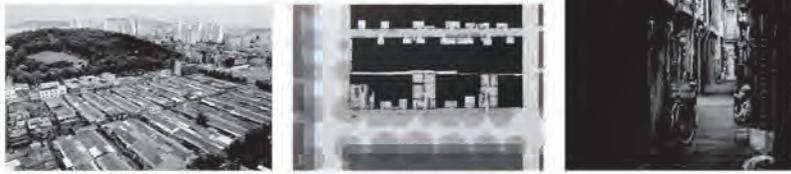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행간을 읽다 비어진 공간에 일상이 채워지는 한옥 아파트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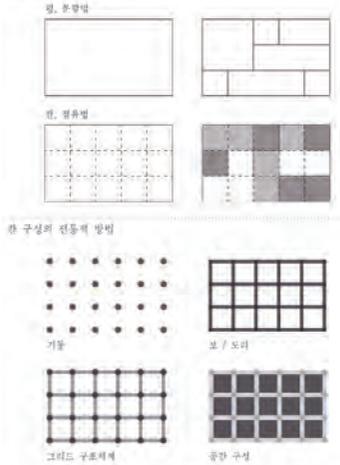
공주대학교
김성운

청량리동에 위치한 부흥주택이 지어지지 어느덧 60여년이 지났다. 아직까지 어르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부흥주택은 물리적으로 그 한계에 다다랐다. 시는 노후화 된 이곳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재생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의 주거지역을 관광지와 시키는 것은 주민과의 관계를 해체할 행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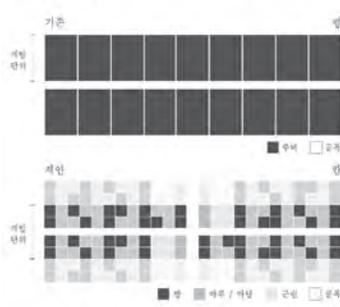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1인 가구를 위한 한식 가옥을 제안한다. 사이트는 부흥주택 중 가장 노후화된 곳을 선별하여 개발한다. 본 제안은 현존하는 골목길의 특성과 한옥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기에 기존 블록과 개발 및 시공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오래된 부흥주택 부지에 유입된 사람들은 이곳을 새롭게 관계하는 장소로 변모시킨다.



필라 칸의 공간 구성법



블록 구성 방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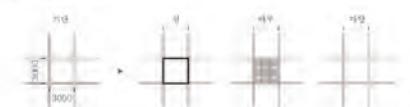


공용 공간의 확장



한 블록을 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x30m 크기의 그리드 형태의 콘크리트 기단을 대지 위에 만든다. 외부공간인 마루와 내부공간인 실은 모두 가구식으로 기단과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이를 유지하여 일련성이다. 비록 실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나 내부공간이 되는 내부와 같다 위치하도록 한다. 이런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모듈이 구성되며 실과 공용을 통해 다른 모듈들과 집합되어 순환을 이룬다. 그중 바뀌어는 제각각의 실과 같은 공간 생활 시설을 배치되며, 사용하는 생활의 필요에 따라 블록을 건너다니며 사용한다. 집중적인 칸 구성은 이제 같은 건물 상 생활형으로 현대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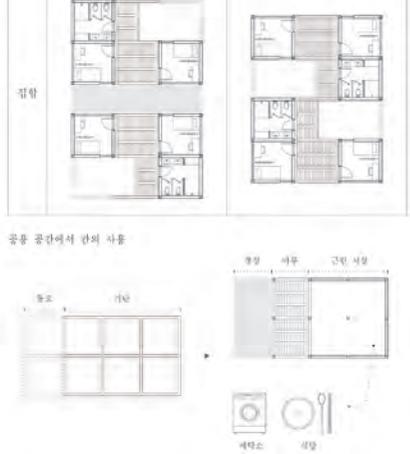
칸에서 공간의 종류



전년방식 가족의 공간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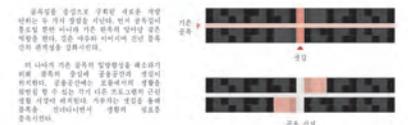
공용 공간에서 칸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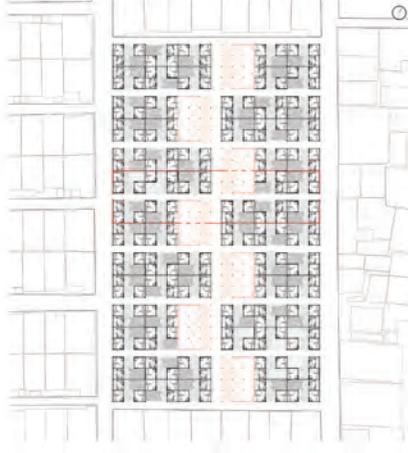
초안 / 도록



공용 공간의 구성



도시 계획



계획부문 입선

칸: 건넌방의 점유

원룸 세대

현대 한국 사회에서 1인 주거는 원룸으로 대표된다. 원룸에서의 방은 모든 사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곳은 외부와 오로지 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다. 방의 문이 열릴 때 개인공간은 외부로 완전히 노출된다. 그렇기에 지나가는 이웃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서로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은 도시의 각박한 삶 이전에 공간의 형식인 것이다. 오늘날 1인 주거 공간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한옥

한옥은 해답이 될 수 있다. 한옥의 '칸' 체계에서 그 가능성은 시작된다. '칸'과 '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평'은 땅과 연면적의 비율로 확보된 양을 의미한다. 건물의 내부 구성 또한 구획된 양의 분할로 이뤄진다. '칸'의 체계는 실의 구성을 통해 땅을 점유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사적 영역인 방이 한 칸 놓이면 순차적으로 공유 영역인 마루가 놓이고, 맞은편에는 건넌방이 놓인다. 마루라는 완충제가 마주한 이웃끼리 생기는 경계감을 낮춘다. 공간의 배치는 이러한 단계적 반복에 의해 구성된다. 이처럼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1인 주거는 전체의 확보가 아닌 개별의 점유가 우선된다. '평'에서 '칸'으로의 회귀는 단위의 차이를 넘어서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끈다.

건넌 공간

'칸'으로 구성된 단지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방과 방이 마루를 통해 건너 관계하듯이 두 가옥의 모듈은 골목길을 통해 건너서 마주한다. 맞닿아 있는 배면의 모듈과는 담으로서 그 영역을 구분하되 시각적으로 연결한다. 모듈의 집합인 단지는 그 중심에 셋길과 세탁소, 식당 등의 근린 생활 시설을 두어 건넌 단지의 사람들과 공유한다. 골목길의 이러한 사용은 지금 청량리 부흥주택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단지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시는 문화 개발 사업을 통해 '재부흥'을 꾀하지만 그 방식은 관습적이다. 본 프로젝트는 1인 가구를 위한 한식 가옥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부흥주택의 미래에 새로운 주거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말 건넌 모듈



말 건넌 모듈



골목거리 관계



공동 공간

칸: 건넌방의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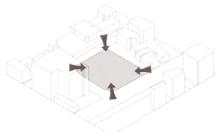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구민재
윤산



SITE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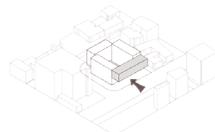
정방형 사이트의 중심에 정방형의 마당을 배치
3개의 주거매스로 분할



용이한 접근을 위해 네 모퉁이에 출입구 배치



주변 가로들의 스카이라인에 맞는 매스 배치



가로면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
주거시설의 프라이버시와 공용마당의 접근성을 위해
1층을 밀로터로 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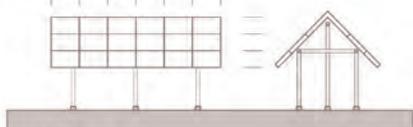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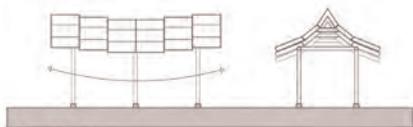
SECTION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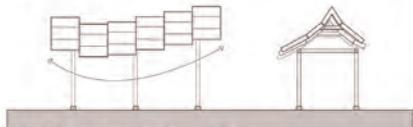
전통한옥의 맞배지붕



기와, 구조의 단순화



곡선 형태의 조정



자유로운 곡면의 입면을 가진 맞배형태의 지붕



주거시설



개인마당



공용마당, 공공공간



주거시설



공용마당



상업시설, 공공도서관을 통한 자유로운 마당 진입



해화로: 마당을 품은 도시한옥의 시작

SITE

대지는 해화-명륜동의 경계에 위치하며 이러한 지명들은 옛날부터 불리어 온 자연부락 명칭들로 당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동쪽에는 도성 8문 가운데 하나인 해화문이 있으며 현재 해화, 명륜성곽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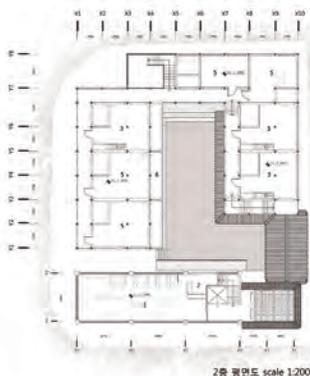
PROGRAM

1962년 경제개발로 인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 경제성장 이후 주택 규모가 커지며 수요가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 진학, 진로문제로 분리된 자녀세대의 경우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에 소규모 주택을 임대로 얻는 경우가 늘어나며 노인가구의 경우도 부양문제 등으로 소규모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화동 일대는 한양성과 인접하여 성곽 마을의 노후저층 주택 밀집지역의 중심지이다. 이는 노후계층과 일대에 밀집된 교육시설로 인해 자녀세대를 위한 1~2인 주거 형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집합 주거의 형태를 전통 한옥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공용공간을 공유하고, 밀집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의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 한옥으로 재해석하였다. 주거시설 사용자의 주 연령층은 20~35세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여 해화로에 인접한 가로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계획하였고 1층의 북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을 입점하여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다.

CONCEPT

양 날개 주거동은 한옥 양식의 중목구조로 되어있고, 양쪽을 연결하는 동은 한식 기와 대신에 패널지붕을 올려 현대건축과 전통한옥의 공존을 의도했다. 자칫 패널지붕이 가벼워 보일 수 있기에, 가로에 접한 도서관동의 지붕은 패널지붕을 서까래가 있는듯한 형태로 변형시켜 현대식 지붕과의 괴리감을 중화시킨다. 지붕형태의 다양성으로 새로운 한옥의 현대식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2층 평면도 scale 1:200



3층 평면도 scale 1:200



1층 평면도 scale 1:150



단면도 scale 1:200

계획부문 입선

계획부문
입선

해화로: 마당을 품은 도시한옥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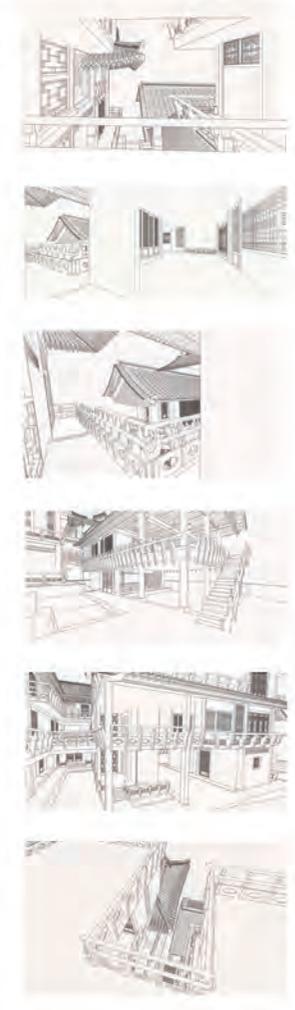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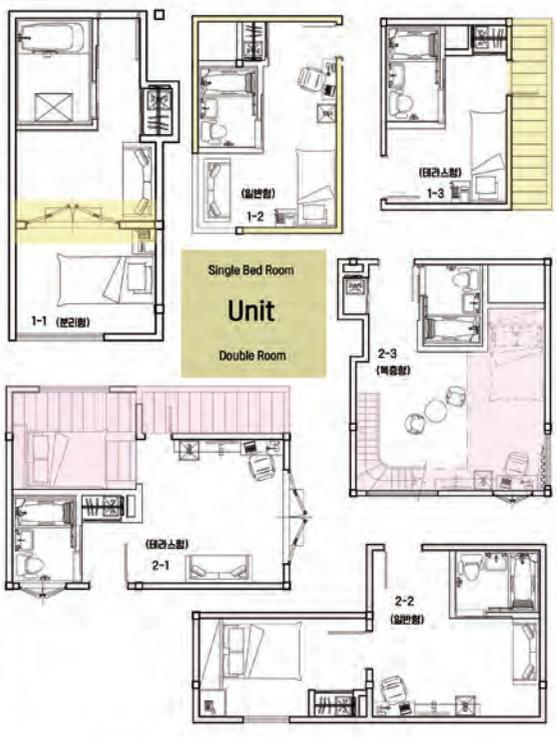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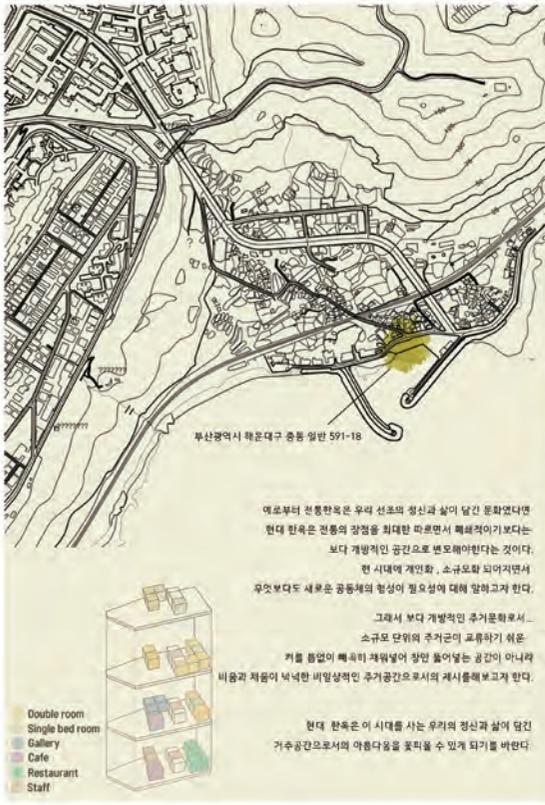
해화로: 마당을 품은 도시한옥의 시작

명지대학교

조혜민

최주현

유건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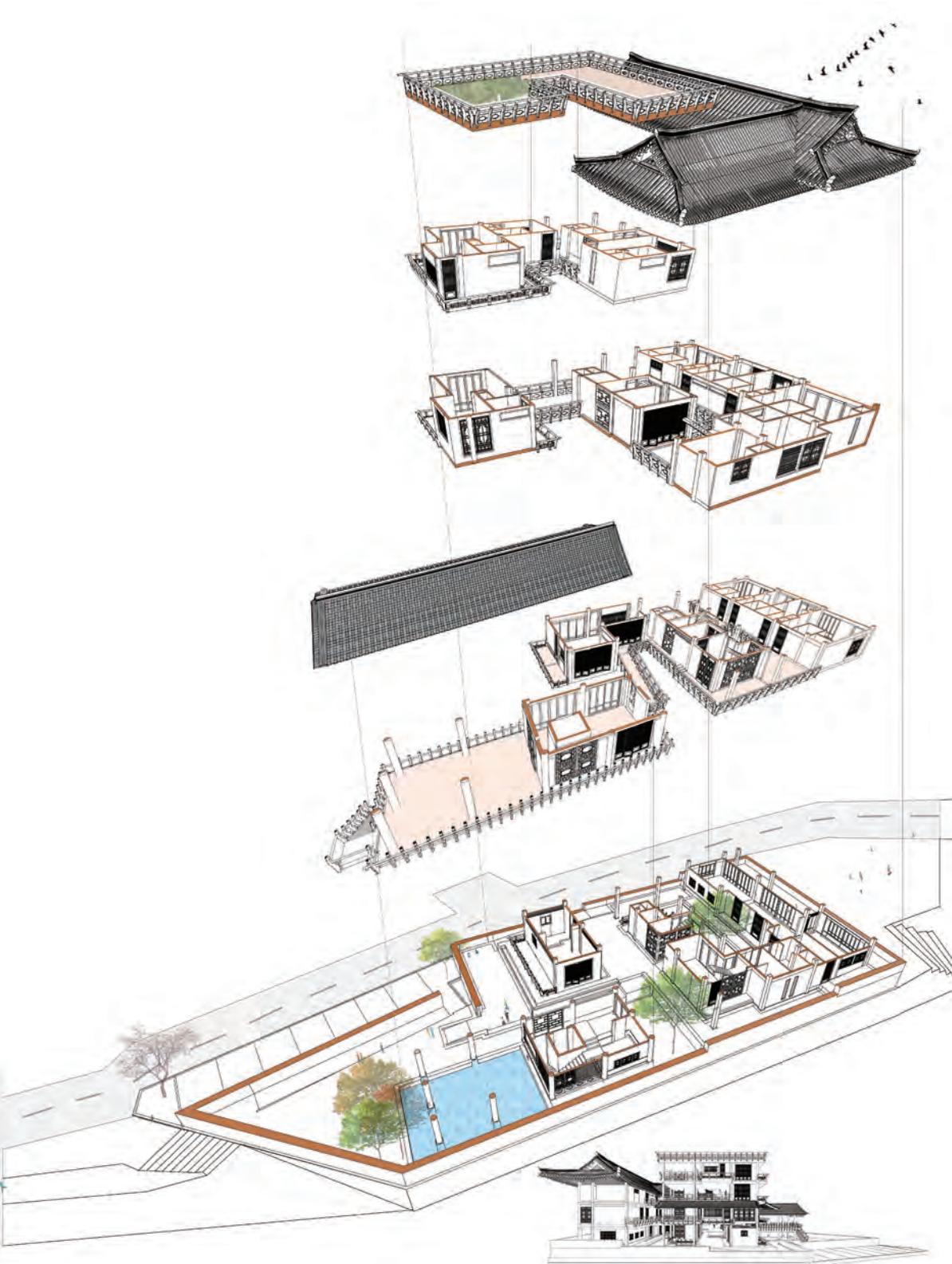


비움 ∩ 채움 - 여유와 즐거움을 만나고 추억하는 집

예로부터 전통한옥은 우리 선조의 정신과 삶이 담긴 문화였다면
현대 한옥은 전통의 장점을 최대한 따르면서 폐쇄적이기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모해야한다는 것이다.
현 시대에 개인화, 소규모화 되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다 개방적인 주거문화로서...
소규모 단위의 주거군이 교류하기 쉬운
커를 틈없이 빠르게 채워넣어 창만 뚫어넣는 공간이 아니라
비움과 채움이 넉넉한 비일상적인 주거공간으로서의 제시를해보고자 한다.

현대 한옥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정신과 삶이 담긴
거주공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계획부문 입선

계획부문
입선

비움 ∩ 채움

비움 ∩ 채움

목포대학교
정세화



지상층 골목길과의 관계



A-A' 단면도



도시골목

계획부문 입선

도시골동

홍익대학교
박성민

도시골동

한옥의 새로운 가치, 동네의 회복

동네의 회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이라는 나라의 원 풍경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네는 개별 필지의 다양성과 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류의 장소가 그 핵심이다.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대의 사회는 이를 더욱 필요로 한다.

반면 기존의 대규모 주거단지는 공동주차, 공동관리, 커뮤니티 시설 등 공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한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단지는 주거 형식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도시와 격리된 경계를 만드는 것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도시골동'은 이러한 동네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기본 밀도를 충족하는 가운데 집합주거에 담아내는 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많은 방법 중, 우리는 마당이 지니고 있던 세 가지 속성에 주목하였다. 즉, 도시의 골목길과 마당의 관계, 기단과 마당의 관계, 주거 영역과 마당의 생활관계다.

작은 마을과 골목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원칙

1. 20세대로 이루어진 집합주거는 좀 더 작은 단위의 채로 분할한다.
2. 분할된 채의 사잇길을 개방하여, 공공의 가로가 되게 한다.
3. 주거 중앙의 관망형 녹지 공간보다는 일상의 접촉이 빈번한 작은 보행가로의 커뮤니티를 제안한다.
4. 한옥의 기반부는 도시의 길과 주차장, 상업공간을 포함하는 활동공간으로 새롭게 제안한다.
5. 이 기반은 기존 한옥의 문간이 해왔던 완충공간의 역할과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유영역으로 변모해간다.

서로 돌보는 커뮤니티 Co-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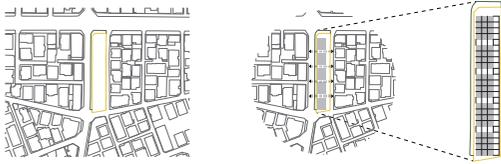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한 사항은 물리적으로는 동네와 집합주거의 중간영역을 찾아보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계층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세심하게 제공하여 주민자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B-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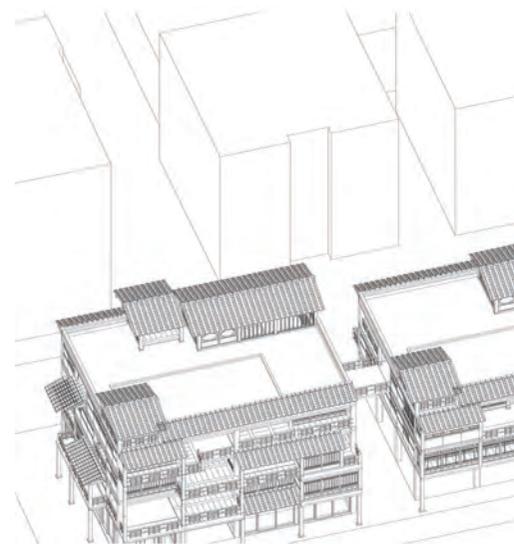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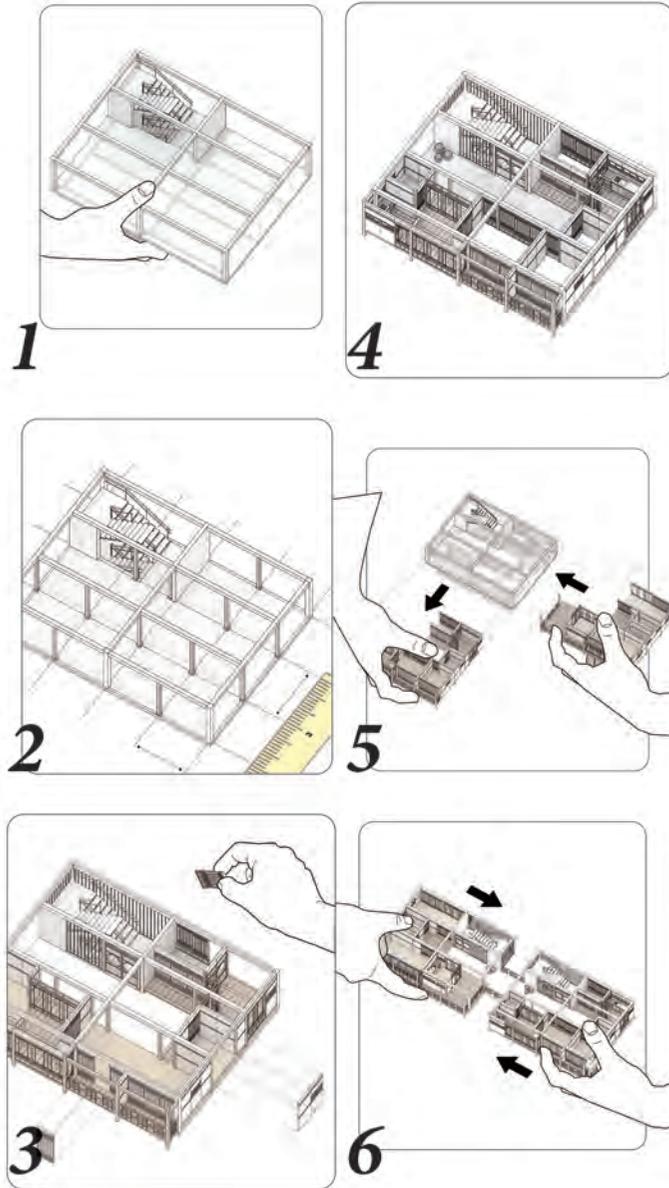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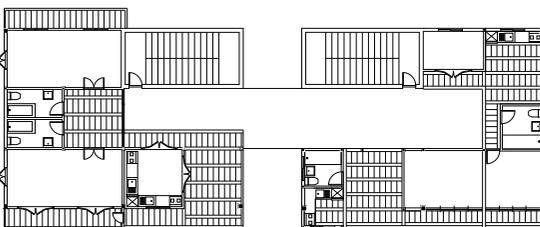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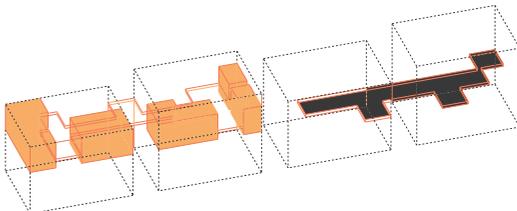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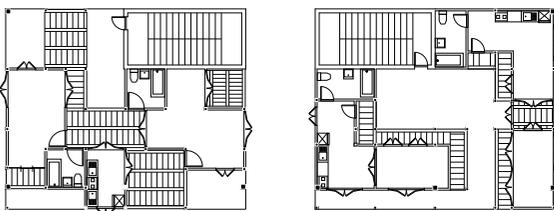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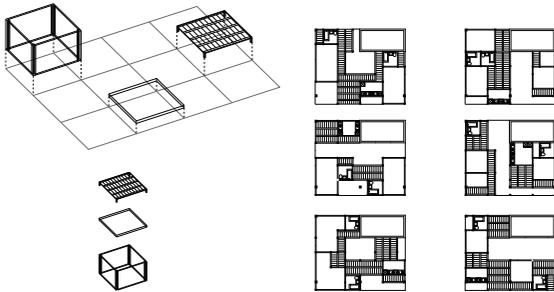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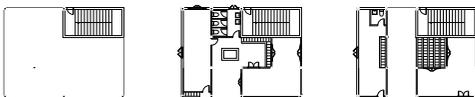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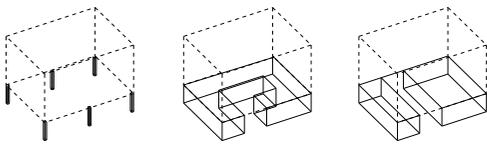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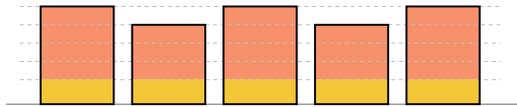


도시골동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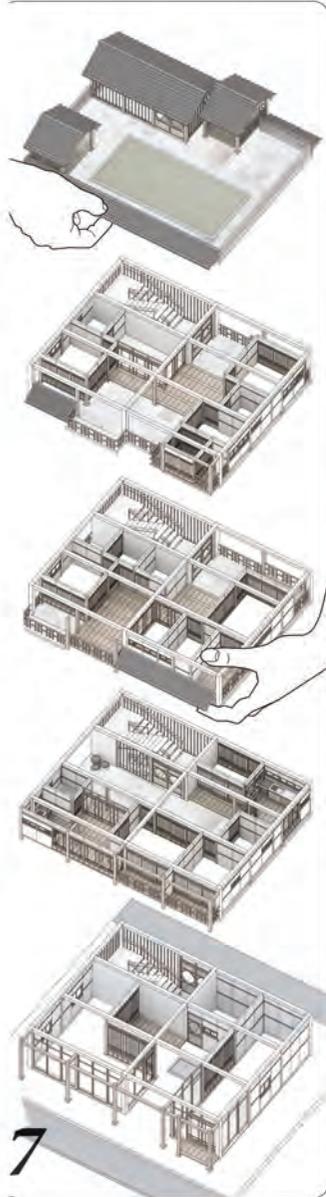
PLAN TYPE



계획부문 입선

현대한옥선언문

세대를 거듭하며 한옥을 현대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졌으나 현대의 도시공간속에 소통할 수 있는 한옥을 삽입하기에는 아직 많은 장애요소가 있다. 우선 경제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료의 한계, 고급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거나 구조적 한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저층주거 양식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옥이 현대 도시공간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물은 도시의 일부일 뿐이고 일반적인 도시는 중,고층의 건물들로 구성되는데, 한옥이 도시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현대적 건물양식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성 있는! 시공성 있는! 근린생활한옥을 도시공간속에 던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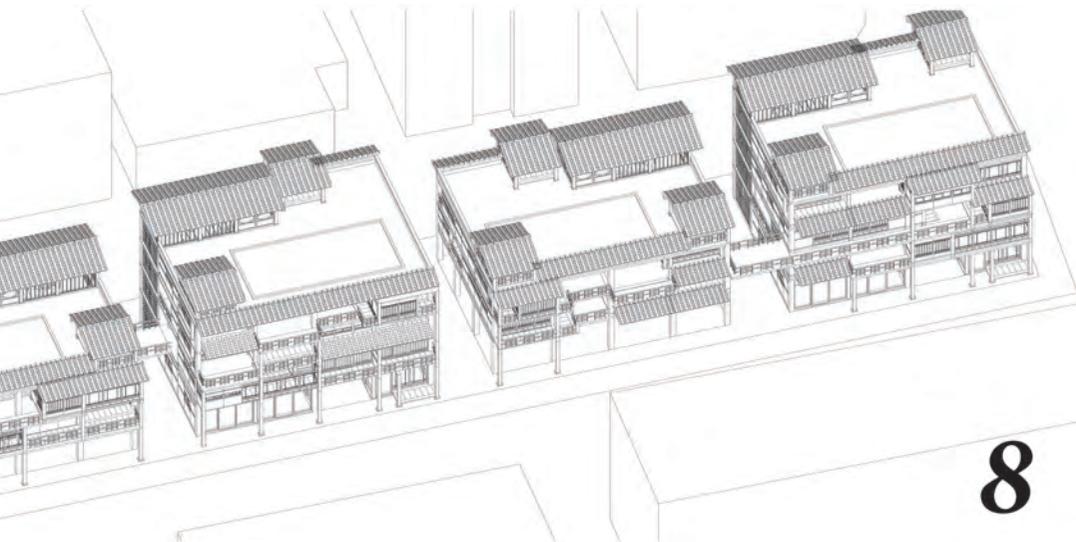


더 이상 한옥을 보존해야할 문화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승 및 발전시켜 현대도시속에 편입 시켜야한다. 한옥은 과거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담고 있다. 현대 우리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젊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에 현대 한옥을 삽입시켰을 때 무리 없이 어울리는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지였던 곳이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상업 문화 주거지역이 공존하고 있는곳 잡종공간, 하이브리드 스페이스, 주민들과 방문자들이 마주치는 절점이 만들어지고 주거와 상가가 같은건물에 공존한다

현대 한옥 선언문 : 한옥 고유의 양식의 공간형식을 간직한 채 현대생활이 가능한 5가지 원칙을 따른다.

1. 전통한옥의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여 사용한다.
2.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재료에 구애받지 않는다.)
3. 현대도시문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주차문제, 용적률, 고민 등...)
4. 경제성을 고려한 건물이 된다. (경제성, 보편성)
5. 과거 옛 삶의 양식을 회복시킨다. 서양식 주거에서 잃어버린 옛 삶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들려준다.

위의 5가지 원칙을 따르는 한옥을 현대 한옥이라 정의한다



현대한옥선언문

명지대학교

정훈재

ecole speciale d'architecture

강주연

한창훈

박민영



PLAN



Elevation



남측입면도
scale 1/100

계획부문 입선

Prologue



과거에 한옥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이었지만 현재는 전통가옥, 문화로 자리 잡혀있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의 밀도는 높아졌다. 아파트가 사람들의 주거로 자리 잡히고, 한옥은 보존해야 할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으로 남았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많이 바빠졌고, 여유 또한 사라졌지만, 요즘은 다시 여유를 찾으며 여러 문화생활을 많이 즐긴다.

Concept



한옥은 비워진 공간이 많다. 지붕이 덮인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여러 만남을 가지며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도시의 모습은 빽빽히 차 비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비움'을 주고 그 속에서 생활과 문화가 공존하게끔 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1인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여 상권의 변화로 밀려났던 화랑들의 1인 주거 공간과 개인 작업실 그리고 체험공방을 계획, 과거 예술의 거리였던 가로수길을 다시 복원하고, 그와 동시에 비워진 공간에서 다양한 만남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Design concept



Pixel 같은 면적 안에서 Pixel이 조밀하게 많이 들어 있을 수록 그림이 더 선명하고 정교. 현재 도시는 고층 건물, 빽빽하게 들어선 건축물들 때문에 밀도가 높다. 하지만 한옥은 중정을 두거나 필로티를 두어 그런 밀도를 최소화 시킨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건축에서 층수를 줄이거나 내부를 비우거나 하여 그 밀도를 줄인다.

Process



사람형의 모듈의 매스로 먼저 실들을 배치하고, 채워진 매스에서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공간과, 중정으로 열린 복도, 조망을 볼 수 있는 테라스 등을 벽으로 막지 않고, 열어주어 매스의 밀도를 줄였다. 또한 지붕도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에만 지붕으로 처리를 하였고, 공용공간이나 복도는 열어두어 전체적으로 열린느낌으로 밀도를 낮췄다.

Site Analysis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하는 이 Site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5-12이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볼 수 있는 밀도가 높은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Program



남측과 동측은 외부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우므로 상업 시설을 1층에 배치하고, 주거공간은 북측과 서측에 배치하며, 남측의 채광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주거와 주거 사이에 공용공간을 주며 외부를 조망하거나 휴게공간에서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동측입면도
scale 1/100

홍익대학교
최주희
최수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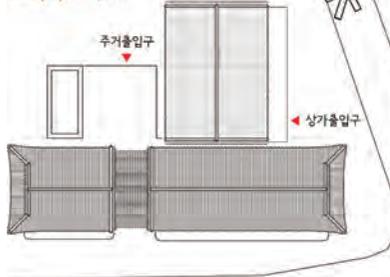
■ 대지 정보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배치도 1/400



위 차: 서울시 종로구 명륜 1가 5-4, 5-11, 12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60%, 용적률200%),
 레미명륜 역사지역지구(높이제한 16m)

대지면적: 908㎡
 건축면적: 532㎡(건폐율58.6%)
 연면적: 1803㎡(용적률198.5%)
 규모: 지상5층, 지하1층
 시설분류: 1층(근생시설), 2층~5층(1~2인 주거시설),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지하~1층(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2층~5층(중목구조)

■ 우리 한옥



■ 현대 한옥



한옥 한옥, 그것이 지어내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800여년은 일찍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싫어하고, 노략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 삶
 은 누구에게나 있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사물에 적용
 되어 왔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한국을 위한 한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온다. 그래서 어떤 건축에서 우리는 한옥이라고 다음으로 한옥에 가
 려 있을 건축물인 그런 생활 속에서 한옥의 한복을 보여주고자 한다.

■ 도심 한옥



한옥이 도시로 나오면서 생기는 질문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넓은 대지에
 지어지지 않았고 적어도 인적이 붐비는 도심에 배치되기 어렵게 되었고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시설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료 및 살기 어려운 구획이 많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편리한 요소들은 지금부터 찾아가기 위해서 한옥이 갖는 주거의
 특이점이 중심하고 도시에서 생활하기가 가장 적합한건축을 하고자 한다.



한옥 도시로 불러오는 중..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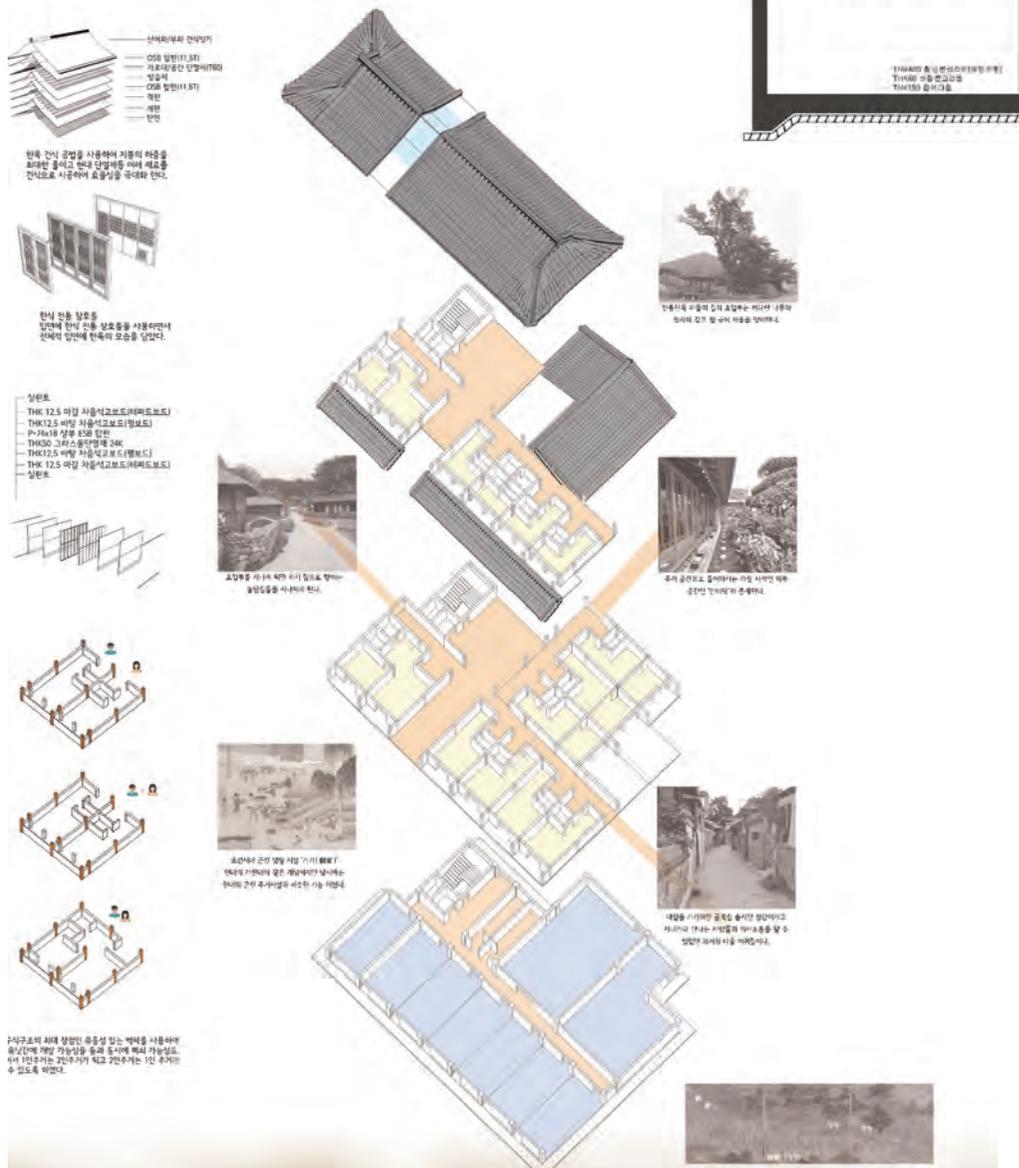
한옥의 현대화는 무엇인가. 한옥의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옥의 원활한 보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한옥으로 도시형 집합주거를 계획해보고자 한다. 도심에 도시형 집합주거를 계획하게 된 큰 이유 또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서다. 같은 면적 안에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 록 입주비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치는 명륜1가 2중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정했다. 대학생들이 많고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어있어 1~2인 주거가 들어가기 안성맞춤이다. 우리는 처음 한옥의 현대화에 앞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보았다. 그리고 진짜 주제인 한옥이 일반 주거건물과 대응하여 건축적으로 주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도를 했다. 첫째, 도심 속에 계획되기 때문에 저밀도의 한옥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여 한옥으로 도시형 집합주거를 계획하자. 둘째 일반 주거건물과 대응하여 모든 법규를 수용하여 어디든 계획 가능한 한옥을 만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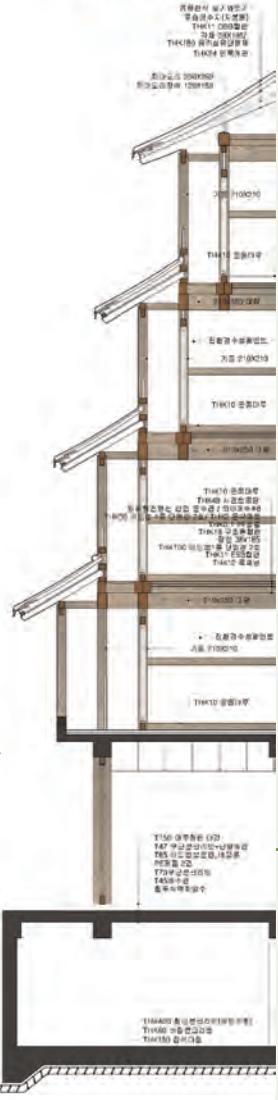
컨셉은 현실적인 한옥과 도심 속에서 우리의 계획안이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까지 흐르는 공간의 위계에 전통성 반영이다. 현재는 공적공간에서 바로 사적공간으로 들어가지만 전통 한옥과 마을은 공적공간(외부, 어긋길) - 준공적공간(마당, 안길) - 준사적공간(사랑채, 셋길) - 사적공간(안채, 건물)으로 흐른다. 또한 수평적인 마당을 품은 한옥의 공간, 길을 통한 마을의 흐름을 반영하여 수평적인 전통에 도시의 수직화를 담아냈다.

이렇게 내용면으로는 거주로서의 대안은 완성했다.

하지만 이런 건물이 어떻게 한옥이고, 한옥으로 보여 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크게 공간, 구조, 형태 부분에서 한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은 각 유닛을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흐름, 즉, 전정-실-후정의 모습을 가져왔고 구조는 중목구조에 전통 지붕구조를 가져왔으며, 형태는 지붕, 난간, 창호 등 한옥의 모습을 가져와 충분히 외부와 내부에서 한옥의 모습과 정체성을 반영했다.



단면 상세도



계획부문 입선

한옥 도시로
불러오는 중..
99%

명지대학교
유제상
김성백
김성철

계획부문
입선

한옥 도시로
불러오는 중..
99%

한옥 그 칸을 올리고, 내리다

한옥의 '칸'의 개념을 정주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공간으로 삼고 SITE의 레벨 차를 '칸'을 틀어올리고 내려 극복함으로써 현대에 맞는 정주공간을 탄생시킨다.

CONCEPT

01 칸 ; 정주의 최소 공간으로 인식, Unit 의

02 한옥의 수평적 공간 배치; 한 SITE의 경사에 맞게 수직적 동선과 수평적 동선 조합

03 '중첩'; 풍경의 중첩, 공간의 중첩; Skip floor 방식으로 공간을 중첩 시켜 공간의 깊이감을 부여 정주 공간 내에서의 중첩된 풍경을 조성

전통 한옥
풍경 속의 풍경

<section>

수평적인 배치

경사에 맞게 틀어올리고 내려
공간을 중첩시킨다.

UNIT

기존의 전통 한옥 평면



기존의 'ㄱ' 자형 평면

기존의 'ㄴ' 자형 평면

기존의 'ㄷ' 자형 평면

UP & DOWN



UNIT PLAN 1:200 1인 or 2인 위한 입체적 unit



unit B

unit A



SITE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250번길 43 일대
좋은 광물을 만나 언덕보면 나오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대지.

기존은 작은 종교건축 위치만 대지로
주용하고 현재의 용내에서도 더더군 만적하고 고요하다.

원형의 동래 읍성의 능선과 어울리는 산바로 일터까지 이어
그 한복을 더한다.

일차에 의해 양쪽 모두 조망이 가능하다. 사방으로 수직적자를 배치함으로써 사방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UNIT A UNIT B UNIT C 공용공간

FLOOR PLAN 1:300

N
4

F.L +5600

F.L +3100

- 1 마을 회의실
- 2 영미실
- 3 카페
- 4 카레

F.L +500

- 1 마을 회의실
- 2 영미실
- 3 카페



SECTION PLAN 1:200

한옥, 그 칸을 올리고 내린다.

동래 읍성이 뒤편으로 나지막히 보이는, 뒤로 돌아서는 동래읍성으로 향하는 언덕길이 존재하는 사이트. 막다른 골목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곳으로 가는 길은 좁고 한적한 동네의 어느 막다른 길. 그곳에 위치한 한옥 주거 단지는 그 안에서 공간에 활기를 받고, 풍경에 활기를 받을 것이다.

그 첫 번째로 한옥에서의 평면적인 특징으로 '칸'을 들 수 있는데 '칸'이란 기둥과 기둥 사이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한옥을 '몇 칸 집'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조의 크기나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 집을 무한정 크게 지을 수가 없어서 생겨난 요소이다. 나는 이 칸의 개념을 살려 '정주의 최소 공간'으로 인식하고 유닛화 하여 1칸, 1.5칸, 2칸, 3칸 등으로 집합 주거를 형성 한다.

전통적인 한옥은 수평적인 공간 배치로 일자형, ㄱ 자형, ㄷ 자형 등 몇 개의 방 옆에 대청마루, 툇마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평적인 공간 배치를 현 site의 레벨 경사에 맞게 한옥의 평면에 'Up & down'을 시도한다.

정주의 최소공간으로 인식한 한 칸을 2~3개로 간격에 맞게 조합하는데, 기존의 한옥의 수평적이고 단조로운 평면 배치에 변화를 준 'skip floor'를 도입하여 경사지도 극복하면서 정주 공간의 '수직적인 unit' 을 제안한다.

unit을 조합함으로써 수평적으로도 공용공간이나 중정 같은 것이 생겨나지만 저절로 수직적으로도 사이사이 전통 한옥의 큰 특징인 마당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곳이 거주하는 여러 주민들의 이동통로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정주 공간을 skip floor 형태 등 수직, 수평 동선을 조합하여 배치하면 공간의 '중첩'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정주 공간 내부의 거주민들이 바라보는 풍경 역시 중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는 전통 한옥에서도 중요시 하는 개념인데 한옥에 대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다 한 구절이 외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액자 속의 액자', '풍경 속의 풍경' 라는 것이다. 한옥의 배치를 비롯 방안에 사방으로 나있는 창문들을 통해 풍경의 중첩을 유발하는데, 이런 방식을 경사가 있는 사이트에 skip floor 즉 수직적 공간의 중첩을 통해 각 unit 마다 거주민들의 눈높이를 다양화 하고 공간의 깊이감을 부여하여 생동감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상상해본다. 나의 방 창문을 열면 조금 낮은 곳에 한옥의 유려한 처마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푸른 나무 아래 거주민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나의 창과 건너편 집의 창문을 모두 열면 그 너머로 보이는 동래 읍성의 나지막한 능선의 모습을..

정주공간 내에서 공간의 중첩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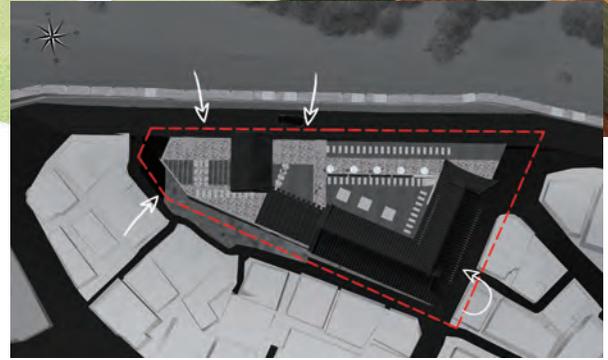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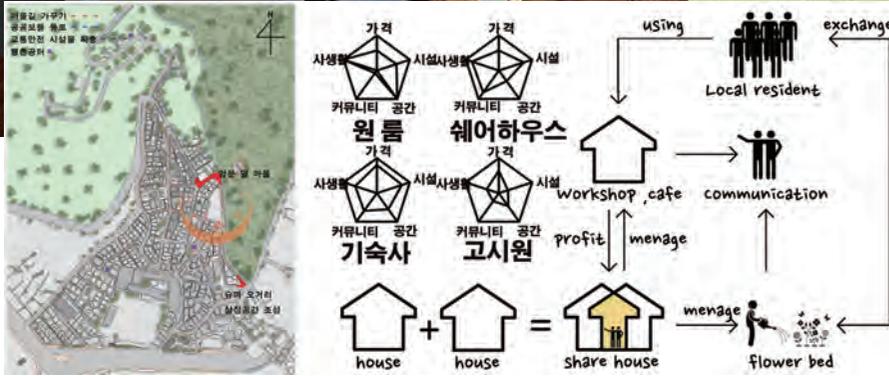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한옥, 그 칸을
올리고 내린다.

부산대학교
안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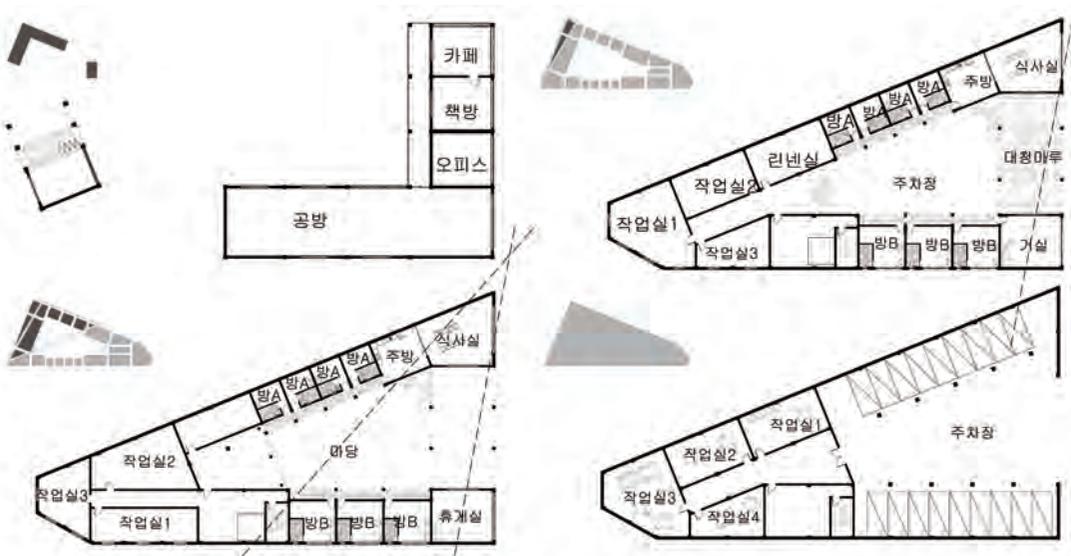




만약 지하에 주거를 배치하고 대지면적 전체에 빈틈없이 간다면, 충분한 주거 세대수를 확보하면서도 지상부는 파격적으로 낮은 밀도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도성을 위한 시설물 갖추고 성곽의 풍경을 해치지 않는 고즈넉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상에 주거세대를 놓는 것보다 성곽과의 경관에서 이 셰어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계획된다면 이 땅에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가치가 피어날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출발점이 되어 땅에서 시작하는 한옥이 계획되었다.

셰어 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의 마당을 통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행촌동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또한 생각한 도로 LEVEL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경제 활성화와 기존 거주민의 막혀있던 커뮤니티 활성화를 예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Floor Plan



계획부문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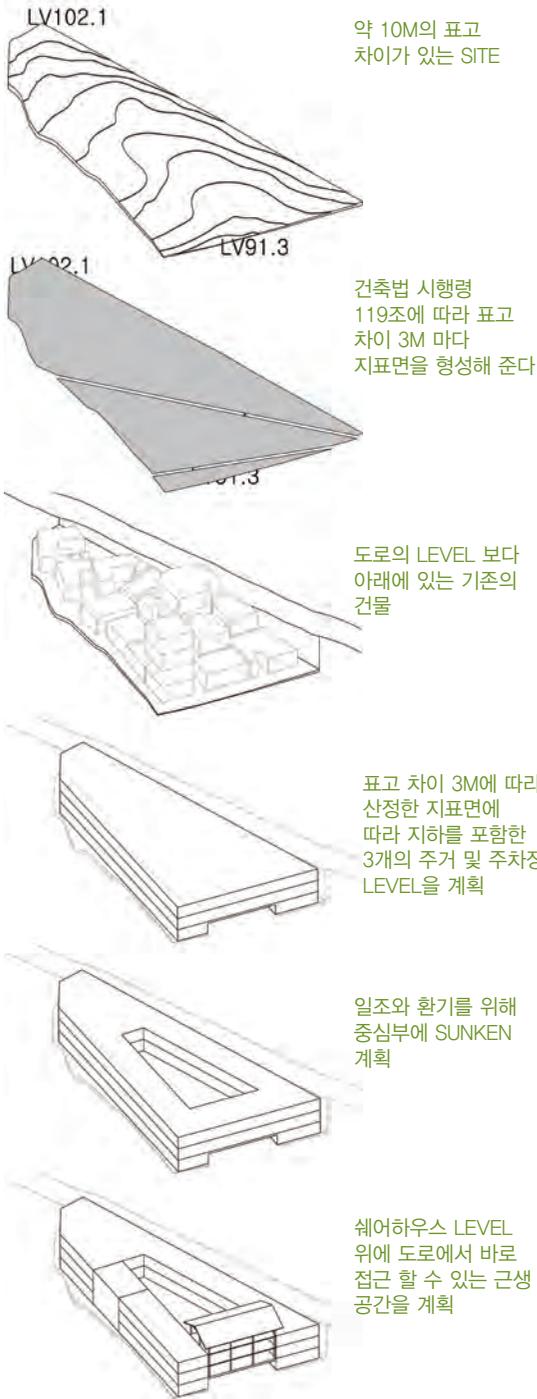
땅에서 시작하는 한옥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번지 일대의 총 15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대지이다. 다양한 사회관계들과 무질서한 획일화, 신속성, 대형화를 지향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혼재하는 도시공간속에 마을이라는 공간은 사라져만 가고 있다. 이는 결국 작은 도시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 냄새가 나는 정겨운 거리와 어깨가 부딪힐 만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의 형태의 도시마을은 몇 안 남아있게 되었다. 터를 밀고 극수직적인 아파트나 빌라의 건조한 개발이 아닌 기존에 있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만 가고 있는 정이 넘치는 마을이라는 개념의 도시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이제는 예민하고 섬세한 혁신적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행촌동의 성곽마을은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에 성곽과 어울리는 경관을 보유한 한옥공동주거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경사지와 표고차가 심한 물리적인 거주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이 대지가 갖고 있는 도로와 연관이 있는 공간적 특징과 프로그램을 반영한 새로운 공동주거(쉐어하우스)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선정한 대지는 도로에서 약 6m가량의 표고차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였고 주차문제는 지하주차장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거주민들만의 공유공간인 마당은 동선을 최소화 하여 중정식의 선크마당을 내어 채광효과를 놓치지 않았다. 또한 1층부에는 남쪽에 누마루를 두어서 통풍문제도 해결하였다. 마당공간에서는 거주민들의 원활한 소통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적극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끊어져버린 사회적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행촌동은 도시농업마을 추진계획에 큰 힘을 쏟고 있는데 도로면에 접한 상층부 옥상에 텃밭을 마련하여 거주민들과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두었다. 상층부 한옥 부분에는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성곽이 보이는 운치 좋은 카페와 각 유닛들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공방을 계획했다.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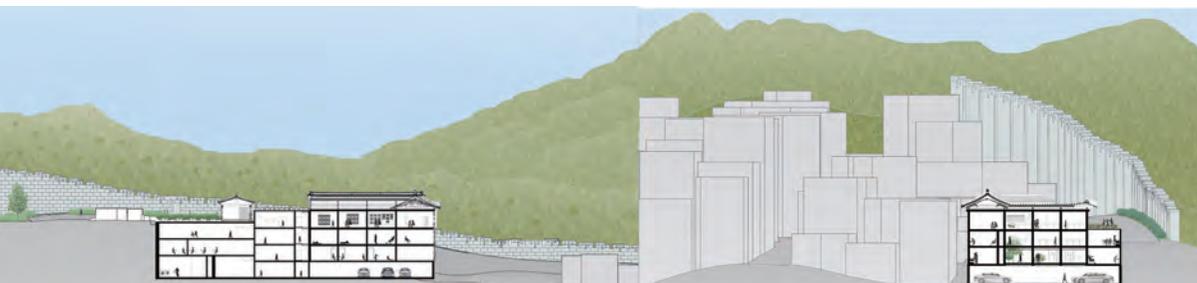
땅에서 시작하는 한옥 (행촌동 쉐어하우스 프로젝트)

원광대학교

김근호

장우태

전명희



2017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 국토교통부

전 화 | 044.201.3783

팩 스 | 044.201.5574

인쇄일 | 2017년 12월 7일

발행일 | 2017년 12월 11일

기 획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044.417.9600)

편집·인쇄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2017©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